

ISBN 979-11-987843-0-8

Cover One 커버 하나
4 Pages 4 x 170mm

Somewhere
어딘가, 여기 아래,
Here Below,
어느 정도 안쪽,
Somewhat Inside,
다른 것 아래 하지만 아직
Beneath It All Yet
들을 수 있을 정도로
Close Enough To Hear,
가까운 곳에,
Sleeps Several Silent,
여럿이 잠들어 있습니다.
Whispering,
조용히, 속삭이며,
Slow Beating,
천천히 뛰고 있는,
Constant Nevertheless
끊임없는 그렇지만
Sometimes
때로는 부서진 마음들.
Broken Hearts,
6.5—7.7
6.5—7.7
2024
2024
Chris Ro
더 월로
The Willow



어딘가, 여기 아래, 어느 정도 안쪽,
모든 것 아래 하지만 아직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여럿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며, 천천히 뛰고 있는,
끊임없는 그렇지만 때로는 부서진 마음들.
Somewhere, Here Below, Somewhat Inside,
Beneath It All Yet Close Enough To Hear,
Sleeps Several Silent, Whispering, Slow Beating,
Constant Nevertheless Sometimes Broken Hearts.



크리스 로, 더 윌로
Chris Ro, The Willow
All rights reserved 2024.

Contents

2

전시 맵

Exhibition Map

4, 24

한편으론 '사랑'을 지시하기도 하는 것
Meanwhile, It Also Symbolizes 'Love'

신재민, Jaemin Shin

9, 30

서 있으면서 앉아 있기.

Standing and Sitting at the Same Time.

크리스 로, Chris Ro

43

전시 크레딧

Exhibition Credits

*Sometimes Quiet
People Are People Too.*
79 x 55cm,
Acrylic on Polyethylene
& Polyethylene

*Some People Ask Ask For
Opinions On Other People.*
112 x 100cm, Mixed Media

*Sometimes Listening.
Sometimes Hearing.*
73 x 55cm, Acrylic on Canvas

All Pleasantries Aside.
57 x 40cm
Acrylic on Canvas

*When People Slowly Realize
There Might Be Something More.*
153 x 235cm
Mixed Media

*As The Sun Sets,
I Set Too With The Sun.*
250 x 332cm
Acrylic on Canvas

Time Well Spent.
125 x 270cm
Mixed Media

*A Conversation
Was No Longer
Necessary.*
80 x 57cm
Acrylic on
Polyethylene
Terephthalate
& Paper

*People Tend To Seek
For The Person They
Think They Know.*
137 x 210cm,
Mixed Media

*The More Time I Spent
With This Person. The
Most Time I Spent With
This Person.*
75 x 54cm,
Acrylic on
Polyethylene Terephthalate
& Polypropylene

*It Took Some Time
To Know What Was Right.
It Took Some Time
To Know This Was Right.*
50 x 40cm,
Acrylic on Polyethylene
& Polyethylene

*Sometimes There Is A Kind of Listening
That Exists Without Sound.*
133 x 103cm, Acrylic on Canvas

The Onion.
297 x 210mm
Ink on Paper

*Enough Time For
Several Conversations.*
75 x 55cm
Acrylic on Polyethylene
Terephthalate & Polypropylene

*Standing And Sitting At
The Same Time.*
103 x 68cm
Acrylic on Polycarbonate

*I Know Deep Down Inside
That This Person Is Who
They Say They Are.*
180 x 125cm,
Acrylic on Polycarbonate

*A Voice Changes Over
Time But Sometimes
We Do Not Spend
Enough Time To
Hear Such Change.*
200 x 375cm,
Acrylic on Polycarbonate

*There Are Such Things
As Parallel People Who
May Never Meet.*
55 x 350cm
Mixed Media

*I Knew I Would
Drastically Fall Short
Of Expectations.
This Was How It Had
Always Been.*
260 x 225cm
Mixed Media

*The More I Talked,
The More I Realized,
I Was The Only
One Talking.*
290 x 420cm
Acrylic on Polyester Mesh

*At One Point,
The Heart
Begins To Melt.*
330 x 267cm
Acrylic on Mesh

*I Was Hoping
They Would Ask
Me Something
But Sadly, They
Never Did.*
260 x 396cm
Acrylic On
Polypropylene

*A Conversation Too Complex
To Understand At First.*
103 x 1200cm, Mixed Media

Entrance To Space 1

Entrance To Space 2

The Willow Main Entrance

Long Term Satisfaction.
140 x 720cm, Mixed Media

한편으로 ‘사랑’을 지시하기도 하는 것

신재민

—

《어딘가, 여기 아래, 어느 정도 안쪽, 모든 것 아래 하지만 아직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여럿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며, 천천히 뛰고 있는, 끊임없는 그렇지만 때로는 부서진 마음들.》 3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긴 제목을 외우기는 쉽지 않다. 단어 사이로 미끄러짐을 반복하고서야 어렵듯이 입에서 맴도는 듯하지만, 이윽고 다시 잊어버리기 일쑤다. 정확한 말로 발화되기를 거의 매번 실패하고 마는 이 긴 제목을 혹자는 축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짧게 줄여 ‘어딘가 아래의 마음들’이라고만 했어도 되었을텐데’라는 생각이 스친다.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내면의 어딘가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 않나. 축약으로 납작해진 말은 명확하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전의 형태에서만 감각할 수 있는, 단어들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리듬은 소멸되었다.

—

2024년 6월 5일 수요일부터 7월 7일 일요일까지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더 윌로(The Willow)에서 열리는 전시 《어딘가, 여기 아래, 어느 정도 안쪽, 모든 것 아래 하지만 아직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여럿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며, 천천히 뛰고 있는, 끊임없는 그렇지만 때로는 부서진 마음들.》은 시각예술가 크리스 로(Chris Ro)의 개인전이자 더 윌로의 첫 기획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겹, 층위를 뜻하는 ‘레이어(Layer)’를 키워드로, 대상이 지닌 다층성을 화두로 꺼내며 ‘공간’에서 시작해 ‘작품’을 경유해 ‘사람’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평면에서 입체적인 공간 설치로 확장된 작가 크리스 로의 작품은 (반)투명한 소재의 물성과 실크스크린의 매체적 특성으로 레이어를 즉물적으로 드러낸다.

—

더 윌로가 위치한 건물의 시작은 경동시장 일대가 형성된 1960년보다도 5년을 앞선다. 1955년 세워져 69년의 세월을 지나온 건물은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로 탈바꿈해 작년 8월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약 10개월만에 여는 첫 기획전시는 필연적으로 더 윌로가 위치한 공간과 경동시장이 지닌 고유의 장소성에 관한 대화에서 출발했다. ‘소셜미디어 속 이미지보다 실제의 경험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한’ 공간은 평면적 이미지를 초월한 무엇을 담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기획자로서 오랜 시간 관심을 두어온 ‘시간성’을 둘러싼 질문과 연결되었다. 따라서 본 전시의 기획은 경동시장 일대라는 한 장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시간의 층위를 지닌 대상을 존중하고 깊이 만나려는 태도를 함의한다.

—

주변 환경이 사고체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영원히 현재에 머무르는 납작함의 미학에 익숙해지고 있다. 효율과 생산성으로 설명되는 현대의 사회경제체제는 납작하게 압축된 스크린, 사유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 속도감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결부되어있다. 실재하는 공간은 편평한 화면 속 이미지의 생산/재생산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서 전체(실재하는 사람)가 파편(화면 속 이미지)에서 탈주하는 감각은 견디기 고된 자극이 된다. 주의력이 패배하고 산만함이 승리할 때¹, 3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제목을 참지 못하고 축약하고만 싶어지는 태도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한편 말의 간격에 스며들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숨을 고르는 시간에서 비로되던 사유는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편평한 표면에서 부유한다.

—

전시 공간은 입체적인 설치로 구현된 작가 크리스 로의 작품, 각 작품에 붙여진 시적인 제목들, 그리고 전시장에 함께 놓인 에세이²와 픽션으로 구성된다.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마주하는 장면은 평소 레이어가 중첩된 평면으로 보여졌던 작품에서, 평면으로부터 들어올려진 개별의

1. 파스칼 브루크너(Pascal Bruckner), *The Triumph of the Slippers: On the Withdrawal from the World*, Polity, 2024.

2. 에세이 「서 있으면서 앉아 있기」는 2020년 네덜란드 West Den Haag에서 열린 전시 《Writing Writing》의 일환으로 작가 크리스 로가 발표한 에세이 「Yesteryear. Both Past and Future」를 기반으로 하며, 이번 전시의 주제에 맞게 재편집했습니다.

레이어가 공간에 수직으로 또는 비스듬히 세워지거나 공간에 흐르는 형태로 존재하는 이미지이다. 텍스트에 해당하는 제목, 에세이, 그리고 픽션은 공간 안에서 이미지와 공명하지만, 이미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적 텍스트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공명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읽는 방식은 시간을 들여 대상을 인식하고 깊이 만나는 과정을 닮아 있다. 전시는 대상을 바라보는 보기의 방식으로 시간을 들여 레이어를 읽기를 제안한다. 한 대상을 — 현행적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 다층적 층위가 공명하는 질적 다양체(multiplicité qualitative)로 바라볼 때 대상과의 깊이 만나기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
공간
—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통 공간화해 인식한다. 시간의 흐름은 공간의 흐름을 통해 지각하게 되며, 공간의 경험이 시간의 경험을 틀 짓는다. 그러나 양화하여 분절될 수 있는 공간과 질적 변화의 연속으로 실재하는 시간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며, 공간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시간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³. 공간은 사용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를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식으로 말하면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생활 특성으로 말미암아 한 장소에 ‘무명의 특성(The Quality Without a Name)’이 형성됨을 말한다(“건물과 도시에 내재하는 무명의 특성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 간접적으로 천천히 생성되는 것이다.”⁴)). 이때 공간을 특징짓는 ‘사건’과 ‘반복’은 시간성을 내재한다. 공간을 방문하는 경험에서의 감응은 공간과 사람을 공통적으로 관통해 흐른

시간의 층위에서 순수 기억(souvenir pur)으로부터 현실화한 기억 이미지가 지각 이미지와 뒤엎힐 때 나타난다. 전시 중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공간의 빛은 작품이 설치된 공간의 면을 드러내며 시간적으로 사유하길 돕는다. 한편 시간적 레이어가 삭제된 장소는 작가의 에세이 「서 있으면서 동시에 앉아 있기(Standing and Sitting at the Same Time)」에서 언급된 ‘재시작 문화(re-start culture)’와 “보이지 않는” 쓰레기 문화(‘invisible’ garbage culture)’로부터 비롯된 과거와 단절되고 미래가 없는 건물로 묘사된다.

—
사람
—

공간과 시간에 관한 논의는 비정형적 조형성을 쫓는 이미지와 작가의 픽션 「양파(The Onion)」를 경유해 타인과의 관계맺기로 확장된다. 장소를 인식하는 행위가 공간에 내재한 시간의 층위를 인지하는 일이라면, 타인과의 만남은 개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지나온 과거와 (지금 이 시점에도 과거로 분화하고 있는) 현재의 집적에서 비롯된 산물로 타인을 인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타인을 만나는 일은 상대에게 나의 시간을 충분히 들이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 과정은 픽션 「양파」에서 ‘법적으로 장기간 데이팅을 강제하는’ 다소 과장해 극화한 형태로 보여지기도 한다. 한편 이 번거로움의 과정을 간과하고 편평한 스크린 속 이미지를 통해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할 때, 타인을 대상화하거나 타자화하는 실수로 이어지기 쉽다. 찰나에 포착된 표층의 한 단면은 결코 실재하는 사람, 전체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의 이미지로 환원된 타인은, 조형적 완전무결함에서 번번이 이탈하는 이미지 — 정지된 화면에 흐르는 이미지, 그림자처럼 남은 움직임의 궤적,

3. 앙리 베르그손(Henri-Louis Bergson) 연구자 김재희의 『물질과 기억: 반복과 차이의 운동』(2008), 그리고 문화예술 연구자 정강산이 2019년 크리틱-칼(Critic-al)에 게재한 「기억의 과잉, 역사의 과소, 오디오스 프루스트: 프루스트적 시간론에 대한 비판적 시화」에서 베르그손이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1889년 출간한 책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에 관한 시론』(최화 역, 2001)에 나오는 시간의 공간화 현상에 대한 논의를 끌어온 부분을 참조했습니다.

4.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영원의 건축(원제: The Timeless Way of Building)*, 한진영 번역/이정은 감수, 안그래픽스, 2013.

구불구불한 선, 듬성듬성 비어있어 경계를 흐리는 면 —처럼, 언제나
예상을 빗나갈 것이다.

—

실재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감각은 우리 주변부를 이루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약화되어 갈 것이다. 지금도 실제적 경험은
파스칼 브루크너(Pascal Bruckner)가 말한 ‘슬리퍼를 신고 소파 위에
앉아 안락함 속에서 세상을 탐험하는⁵⁾’ 행위로 손쉽게 대체되곤 한다.
안락함에서 벗어나 실재하는 대상과 관계맺기를 다시 배우는 과정은
대상을 — 공간과 사람을 — 시간을 들여 축적된 층위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직접적인 경험은 납작한 화면에서
비춰지는 단면이 아닌, 실제의 대상에게 나의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는
번거로움이다. 종종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표피의 안쪽까지
들어가볼 때, 시선의 끝에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건 겹겹이 쌓인
레이어 아래 놓인 ‘중심’일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상처 받았지만,
한편으론 ‘사랑’을 지시하기도 하는 ‘마음(Heart)’이다.

서 있으면서 앉아 있기.

크리스 로

—

다음은 이안 라이넘(Ian Lynam)이 2020년에 웨스트 덴 하그(West Den Haag)에서 큐레이팅 한 《라이팅, 라이팅(Writing, Writing)》 전시를
위해 발표한 에세이, 「지난 해. 과거와 미래 모두(Yesteryear. Both Past and Future)」의 편집본입니다.

—

안타깝게도, 저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잊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경험 중 배운 많은 개념과 지식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읽었던 책들이나 참석했던 강의는 이제
흐릿한 기억 뿐입니다. 거의 꿈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 중 많은 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남은
일부 지식들이 있습니다. 제게 어떤 지식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지식 조각들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무엇이 가고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 프로젝트의 뿌리에는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Christopher Alexander)¹⁾의 몇 가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알렉산더의 글을 접하게 되었고, 어떤 이유에서 그가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것들은 제 정신 속에 이상한 집을
지었습니다. 제 전두엽에 소파나 안락의자가 놓여있다고 해 보죠. 이런
생각들은 갑자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생각들은 제 뇌 속 가구에 앉아 제집처럼 편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저도 그
생각들이 거기 있어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저의 고유한 신념과

5. 1과 동일

1.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는 건축가이자 건축 이론가입니다. 그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가르쳤습니다.

세계에 대한 관찰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이 인생의 파도와 흐름에 함께하면서, 저도 종종 제 나름대로 비슷한 생각이나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접하고 나서는, 이런 생각과 관찰이 거의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

돌아보면, 이런 생각들이 제 정신 속에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때 저는 어떤 이들이 말하듯 형태에 빠져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론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념적 사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딜러 스코피디오 스튜디오(Diller Scofidio studio)²나 모포시스(Morphosis)³의 건축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 매력에 사로잡혔지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런 작업들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아름다움. 형태. 표면과 외관. 그 당시, 저는 제 귀와 눈 바로 앞에서 잔뜩 펼쳐지던 이성의 세계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나였고, 가끔은,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이런 성향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마다 구입하던 A4/레터 사이즈 강의자료 속 사진에서 알렉산더를 만났을 땐,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대부분 같은 시기에 같은 복사가게에서 매년 구입했습니다. 이 자료에 흥미로운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책에 형태는 없었죠. 멋진 사진도 없었고, 작품 사진도 없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장소나, 예시를 담은 몇몇 무작위 이미지와 함께 텍스트만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특정 텍스트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기억한 이유가 시각적인 형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실제 건축물을 보는 것은 제게 그다지 흥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시각이 조금 더 성숙해진 오늘날에도, 그것은 여전히 제게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흥미를 느꼈던 ‘그’ 형태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흥미를 이끄는 것은 그 빠대 속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의 구조 또는 본질. 누군가는 이것을 개념적인 토양이나 흙의 형태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작업과 생각의 기반인 무언가가 저를 계속해서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확신한, 그를 납득시킨 아이디어들. 이것들은 아직도 저와 함께 있습니다.

—

서울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쓰레기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가요.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쓰레기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감을 덜 느끼게 만듭니다 - 결과에 대해 덜 걱정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덜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유형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를, “재시작 문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우고, 버리고, 다시 시작하기.

—

서울만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문화가 여기에만 존재한다고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죠.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간과 삶에 대한 제 관찰과 생각은 이 도시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문화는 여기서 특별한 징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알렉산더의 생각과 함께 저에게 영향을 줍니다.

—

그러니 서울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알렉산더는 종종 건물이 자랄 수 있다는 개념을 고민합니다. 아마 도시도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과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 환경에 딱 알맞은 건축. 주변과

2. 딜러 스코피디오 + 렌프로는 뉴욕에 본사를 둔 건축 회사입니다. 이 글을 작성할 당시 파트너는 원래 엘리자베스 딜러와 리카르도 스코피디오였습니다.
3. 모포시스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건축 디자인 회사입니다. 형태에 대한 극적인 감각으로 유명합니다. <https://www.morphosis.com>

하나가 되는 건축.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러한 것의 기초는 한국의 뿌리 깊은 사회, 역사 및 전통적 미학적 사고, 즉 풍경이나 환경과의 조화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와 함께 성장하고 나이들 수 있는 건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건물. 어쩌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창조하는 것은 쓰레기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지구의 영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계요. 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아마도 산업화된 한국 이전의 생활과 행동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지난 70년쯤의 시간과 유사하게, 오늘날에도 격렬하고 빠른 경제성장이 존재합니다. 팽창과 부는 때로 공간에 대한 감각이 매우 부족한 콘크리트 밀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앞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쓰레기 문화를 계속하는 환경이죠.

—

짓고 없애고.

짓고 없애고.

짓고 없애고.

—

우리는 종종 자라지 않는 건물을 세웁니다. 그들은 존재하고 그리고는 소멸합니다. 그들은 지어지고 사라집니다.

—

한국에는 ‘재개발’이라는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도시 재개발 사업’의 유형 또는 변형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 눈에는 또 다른 종류의 개발입니다. 재개발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 동네의 많은 주민들은 이를 환영합니다. 그들은 변화와 개발 모두를 환영합니다. 재개발 과정에선 일반적으로 개발 그룹이 기존 주민의

집/건물/부동산을 모두 구매합니다. 주민들은 현금 또는 미래의 새 아파트를 제공받습니다. 그들의 옛 주택은 폭파되고 전체 동네는 모두 사라집니다. 남아 있는 것은 흙 뿐입니다.

—

짓고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이전 동네 자리에 대신해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나 콘도와 같은 거대한 복합 건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일종의 광장, 상업공간이 있는 단지입니다. 이 동네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매우 손쉽게 부자가 됩니다. 복잡한 리모델링, 땅의 재측량, 부담이나 소란은 없습니다. 그저 깨끗한 시작이죠. 그리고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전 그들의 부동산은 팔리지 않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화재 없는 도시의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주택 가치가 절대로 오르지 않을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집을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꽤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고, 이 돈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해, 아이러니하게 또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짓고 없애고.

—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동네, 또 다른 동네, 동네들이 계속해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어떤 과거와의 연관도 없는 아파트 단지가 갑자기 이 공간에 나타납니다. 아무런 연결도 없습니다. 즉 이 단지는 난데없이 이곳에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도 없고, 어쩌면, 알렉산더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미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4. 재개발은 공공 주택 재개발 프로그램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도시 재생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개발은 1970년대에 무허가 주택과 불법 주택 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다양한 재개발 개념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 새로운 단지는 당분간 존재할 것이고, 나중에는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똑같이 파괴되거나 교체될 것입니다. 심지어 대규모 아파트도 철거되고 정리되니까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자라지 못하는 건물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 분리된 건물. 환경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은, 무관한 건물. 어느 도시, 어떤 환경, 어디에나 거의 그대로 놓일 수 있는 건물. 저는 이런 수많은 예시를 한국의 신도시—현존하는 도시 지역 외부에 지어진, 기존에 지어진 거주지나 구조물 없이 텅 빈, 혹은 나무로 가득 찬 지역에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지어진 위성 도시들—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솟아나 비슷하게 빠르게 발전된 복합 단지/도시 주택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이 단지들의 현실은 엄청나게 빠르게 지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경제적인 건설 방식을 이용해서요. 이런 방식은 종종 건물이 빠르게 노후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때때로, 불행하게도, 건물들은 안 좋게 나이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이 건물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증축되거나 확장되기보다 철거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렉산더가 걱정했던 유형의 디자인이죠: 과거, 그리고 또, 미래가 없는 건물들입니다.

—

그래서 현대 문화에서는 무엇이 이에 반대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도달했을까요? 그리고 이 개념은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업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순수한 형태에 대한 탐구는 항상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시각 형태의 순수한 탐구. 이는 중요한 순간이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발견의 과정이죠.

—

어디로 가는지 보기.
어디로 가는지 느끼기.
이어 나가는 과정을 허용하기.

—

최근에, 제 탐색의 결과 또한 “만들고 지워버리는” 세상에서 누락되었다고 느끼는 것들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

삶의 흔적.
질감의 흔적.
존재의 흔적.
시간이나 변화의 흔적들과 공명하며,
성장하고 또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

—

알렉산더의 글에서 그는 종종 삶의 순간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를 “중심”이라고⁵ 부릅니다. 중심은 생명이 흐르거나 통과할 수 있는 장소, 공간 또는 구조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중심을 어떤 면에서 ‘레이어’로 상상합니다: 질감. 거침의 정도. 시간을 통해 일어나거나 시간을 거쳐 일어나는 일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계, 점진적 변화, 연결을 만드는 것은 직선이나 단단한 선이 아니라—변화를 통해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환은 단계별로 일어납니다. 움직임 속에서. 시간에 따라.

—

서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들은 이러한 과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에 있죠. 그들은 과거와 현재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불운한’ 동네였고, 때로는 재개발에 적격하지 않았거나, ‘짓고 지워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네들은 종종 구부러진 길, 골목길, 한두층짜리 주택⁶ 및 빌라⁷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빌라는

5.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The Nature of Order: An Essay on the Art of Building and the Nature of the Universe, Book 1 - The Phenomenon of Life*, Center for Environmental Structure, 2002, 83페이지.

6. 단독주택은 분리된 주택의 다른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한 가정을 위한 주택을 뜻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나의 주거지에 여러 가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진짜’ 주거지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고층 아파트의 불운한 자식입니다. 한국식 빌라는 일반적으로 가족과 개인을 위한 거주지로 구성된 다가구 건물입니다. 이는 보통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콘도미니엄보다 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빌라는 중산층보다 약간 낮은 계층을 위한 주거 유형이지만, 이러한 구조물은 단독 주택과 함께 시간과 삶만이 제공할 수 있는 멋진 층과 질감을 제공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은 때로는 상당히 비싸고 빌라의 경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지만, 이러한 종류의 주거지는 종종 인간적인 규모의 주거 환경에서 함께 발견됩니다. 빌라와 단독주택이 함께 존재하는 동네에서는 공식적인 장기적인 계획이나 고려가 없었기에 종종 인간적이고 매우 생동감 있는 공간 경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의 1층이나 차고 또는 주차장은 때로는 레스토랑, 카페, 소매점 또는 예술가/디자인 스튜디오로 임대되어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러한 공간이 기존에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엔 길이나 거리의 그리드가 수십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이 있고, 이러한 동네의 경험에는 인간적인 규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에 대한 사랑은 공유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앞서 언급한 거대 복합단지가 투자와 생활의 우선 선택지입니다. 만약 주민이 두 종류의 동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는 동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닌(비록 일부는 이것을 더 선호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투자와 경제적 이유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대체로 항상 더 나은 투자입니다.

7. 빌라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때로는 개인이 거주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콘도 유닛보다 가치가 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저는 지금까지 이 작은 범위의 동네에 매료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료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는 아직 저에게 이러한 규모의, 공간적인, 또는 분위기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는 아직 이러한 레이어를 저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동네에는, 이들이 제공하는 감각,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성, 그리고 여기에 매우 살아있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전환에 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극도로 명백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제가 지금까지 탐구하고 있는 작업 속 유사한 현상들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

저는 최근에 형태를 만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어떻게 레이어, 공간 그리고 질감과 함께 작용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렉산더의 “중심”의 시각적 동등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구별을 통하는 것이 아닌 흐릿함이나 부드러움의 렌즈를 통해 일어나고 보여지는 특성, 이 전환의 시각적 동등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

덜 직접적이고.
덜 냉철한 과정들.

—

이 작업에 대한 제 동력의 일부는 수년간 모든 것에 컴퓨터를 이용한 뒤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컴퓨터와의 작업은 앞서 언급한 미래나 과거가 없는 건물과 개념적으로 유사할 것입니다. 컴퓨터 역시 ‘만들고 삭제하는’ 모델을 따릅니다. 그것들은 속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요. 파일을 만들고, 지웁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너무 쉬워서 종종 폐기하고 삭제합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특별히 정밀성과 속도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삶의 흐릿함을 표현할 기회는 적고 멀어보입니다.

—
이것은 마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이른 아침 시간에 여기저기에서 조용히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수년 동안 나에게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디자인의 정확성, 컴퓨터의 정밀성,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의 예리함, 0과 1의 이진법 세계에 지쳤습니다. 저는 피곤했습니다.

—
저는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제3의 세계?

—
얼마 전, 관찰력 좋은 한 친구가, 제가 최근 작업하고 있던 몇 가지 흐릿한 실험을 살펴보는 중에, 작업에서 무언가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나는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
소리를 듣는다고? ‘무엇’을 듣지? 소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물리적으로도 저의 작업에는 어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가 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눈으로 소리를 듣는다라니. 내가 만든 형태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도록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경이로웠죠. 나는 두 차원에서, 즉 정적으로 그리고 동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지만, 결코 소리는 없었습니다—아니 적어도 의식적인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관찰은, 간단한 만큼,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더 중요하게는, 해방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 없이 소리 만들기.

—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제가 만든 모든 형태에 사람들은 의미를 요구했습니다:

—
이 형태는 왜 존재합니까?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요?
이 형태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이 형태는 왜 이런가요?

—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때, 특별히 깊은 생각이 없었을 때, 저는 항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내게 오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내 설명이 들리든 안 들리든, 그들은, 의미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 교수들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
이것은 자주, 제 기분을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가끔은 그냥 만들 뿐이므로.
(그리고 그 이상은 없으므로.)

—
해방. 갑자기, 소리와 형태 간의 연결이 너무나 자유롭고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니다. 나는 음악가와 그들의 작업 과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빌 에반스나 류이치 사카모토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이러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왜 만들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소리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단지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소리를 해석할 수 있는 개방성이 존재합니다.

—

저는 이 안에서 큰 자유를 느꼈습니다—아마도, 어쩌면 아마도, 나는 소리와 유사한 것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

그래서 저는 이 소리 없는 소리라는 경계 사이의 세계를 탐험해 왔습니다: 악을 듣지 말고, 악을 보지 말며, 악을 말하지 말라. 이 모든 과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반직관적입니다. 인쇄물이나 움직임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탐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위해서, 저는 알렉산더식이라 부를 수 있을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탐험 방법처럼 느꼈습니다. 그것은 과도기적이고, 덜 명확하며, 어렵풋하게 흐린 느낌이었습니

—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느끼나요? 어떻게 변화를 직감할까요? 어떻게 덜 명확한 선, 정의, 구분을 만들 수 있을까요?

—

아날로그의 바스락거림과 인쇄물을 탐구하는 과정도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컴퓨터가 의도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시간입니다. 컴퓨터가 결코 원치 않는 긴 시간입니다. 이 연구의 대부분은 모두 비효율적이며 시간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목표가 없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무언가 있었다면, 그것은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특정한 연관성: 어떤 삶의 감각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

『패턴 랭귀지(A Pattern Language)』에서, 알렉산더는 이러한 레이어들과 전환의 여지를 주는 단계를 “대략적으로 중간에 있는 것”이라는 개념의 시(詩)적 표현으로 ‘중간 공간’이라 부릅니다.⁸ 그리고 이것이 작업 과정이 되었습니다. 때로 이것은 순간의 집합체인 ‘소리’로,

경계지역에 대략 자리잡은 서로 다른 물질들 위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물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은 레이어와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것들을 탐색하며, 특정 형태나 경험에 ‘생명을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

나는 덜 정확한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변화할 수 있는 것, 즉 시간이 지나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어떤 사람의 환경의 일부가 되거나. 변화, 살아있는 변화이거나 더 나아가 그냥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어떤 장소의 일부가 되기를요.

—

그저 버려지지 않기.

없어지도록 짓지 않기.

과거와 미래 모두를 지닌.

서 있으면서 동시에 앉아있는.

8.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사라 이시카와(Sara Ishikawa), 머레이 실버스타인(Murray Silverstein), *A Pattern Language: Towns, Buildings, Constr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606페이지.

여기, 어딘가 안쪽, 아래,
 아래, 어딘가, 아래,
 어딘가, 어딘가, 여기, 그 모든
 어딘가 안쪽, 아래, 그 아래, 것 아래, 그럼에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어딘가, 끊임없이, 그럼에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어딘가, 아래, 때로는,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 들을 수, 그 안에는, 여기, 침묵하고, 때로는
 속삭이고, 있을 만큼, 여러 개의, 어딘가, 느리게 뛰고, 여러 개의
 조용히, 가까이, 들을 수, 안쪽이, 속삭이고, 침묵,
 느리게 뛰고, 조용히, 있을 만큼, 잠들고, 상한 마음은 여기, 느린 박동,
 때로는, 느리게, 가까이, 들을 수 있을, 아래, 상한 심장이
 부서지지만, 속삭이듯, 끊임없이, 만큼, 어딘가, 어딘가,
 변함없는, 때로는, 침묵하고, 여러, 그 모든 것 아래, 아래,
 심장이, 끊임없이, 느리게 뛰고, 부서지고, 어딘가, 여기,
 여러 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삭이고, 안에 있지만, 어딘가
 잠들어, 상한, 속삭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안쪽,
 있습니다. 마음을, 그럼에도, 느리게 뛰고, 가까이에서, 그 모든 것
 잠들고, 불구하고, 때로는, 잠들어, 아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심장이, 가까이에서
 뛰고, 잠들고
 있습니다.

Here, Somewhat Below, Beneath, Nevertheless, Constant,
 Below, Inside, Here, It All, Constant, Nevertheless,
 Somewhere, Somewhere, Beneath It all, Somewhere, Several Sometimes
 Somewhat Here, Somewhere, Below, Sometimes Several
 Inside, Below, Somewhat Here, Silent, Silent,
 Close Enough Beneath It All, Inside Somewhat Slow Beating, Whispering,
 To Hear Yet, Sleeps Inside Whispers, Slow
 Yet Beneath Close Enough Several, Sleeps, Broken Beating,
 It All, To Hear, Close Enough Hearts Broken
 Sleeps Sleeps Enough To Hear, Sleep Here, Hearts
 Several, Several To Hear, Below, Sleep
 Whispering, Silent, Constant, Several, Somewhere, Somewhere,
 Silent, Slow Beating, Sometimes Broken, Beneath Below,
 Slow Beating, Whispering, Silent, Whispering, It All, Here,
 Sometimes Constant Slow Beating, Slow Somewhat Somewhat
 Broken Sometimes, Whispering, Beating, Inside Somewhat
 Nevertheless, Nevertheless, Broken Sometimes Yet Inside,
 Constant Broken Hearts. Nevertheless, Silent, Close Beneath
 Hearts. Nevertheless, Constant, Enough It All
 Hear. Hear. To Close Yet
 Enough To Hear.

Meanwhile, It Also Symbolizes ‘Love’

Jaemin Shin

—

Somewhere, Here Below, Somewhat Inside, Beneath It All Yet Close Enough To Hear, Sleeps Several Silent, Whispering, Slow Beating, Constant Nevertheless Sometimes Broken Hearts. At 24 words long (in its English iteration), this title is not an easy one to memorize. It is only after cycling through the slippage between words several times that they begin to feel familiar in one’s mouth — though of course, one is still likely to forget them again. Some might push for abbreviation; after all, the thing is so long it is almost impossible to articulate the whole with any precision. The passing thought comes unbidden: “Why not just *Somewhere, Beneath It All, Some Hearts?*” Ultimately the gist is that wounded hearts are somewhere deep within, yes? These shorter versions, flattened in the process, are certainly more straightforward and efficient. But of course, then we lose the rhythm of the original, relaxed, unhurried, flowing through and between the words.

—

A solo exhibition of works by visual artist Chris Ro, *Somewhere, Here Below, Somewhat Inside, Beneath It All Yet Close Enough To Hear, Sleeps Several Silent, Whispering, Slow Beating, Constant Nevertheless Sometimes Broken Hearts.*, is the first event of its kind curated in-house by creative space The Willow. Building on the keyword “Layer,” the curatorial approach seeks to unpack the multi-layered nature of the object, taking “Space” as its starting point and expanding the discussion to include “Person,” with a stopover at “Artwork.” The artist’s own works, which have themselves expanded from the linear plane of the canvas into the realm of three-dimensional installation, combine the physicality of their (semi-)transparent material with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silkscreening as a medium, playing not just with the concept of layers but with the very fact of their materiality.

—

The Willow is housed in a building that predates the establishment of the larger Gyeongdong Market area by about 5 years. Built in 1955, the structure’s transformation into a creative space was made official via a grand re-open in August of last year. Opening now, some 10 months into its operations, this inaugural exhibition by The Willow necessarily found its genesis in a series of conversations about the inherent placeness of the Gyeongdong Market area that surrounds it. As a curator, I wondered what this space — said to “have more potential than could ever be captured by an image on social media” — might actually hold beyond the flattened image: a question, in turn, that linked directly to ongoing questions about temporality that I have been interested for a long time. Therefore, the narrative of this exhibition is not limited in scope to the literal location of the Gyeongdong Market and its surrounds; rather, the implied approach here is one that centers respecting — and seeking deeper encounters with — the object, which in turn claims its own layers of time.

—

Given the premise tha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an dominate our way of thinking, we are growing accustomed to an aesthetics of flatness that dwells perennially in the present. Our current socioeconomic system, defined by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s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conditions that include the flat compressed screen and the kind of speed that does not allow the intervention of thought. Actual spaces now seem to exist simply to showcase the re/production of images on a flat screen, and in a person-to-person meeting, the sense that the whole(the real person) is out of line with the fragment(their image on the screen) can be difficult to bear. In this digital age marked with the triumph of distraction and the defeat of attention¹, it is, perhaps, only natural that most would instinctively

move to abbreviate a 24-word title, unable to withstand its sheer length. Meanwhile, any thoughts that might stem from the spaces between words, spaces in which to breathe, are unable to find a place and end up drifting across the flat surface of things.

—

The exhibition consists of site-specific artworks implemented in three dimensions, poetic phrases associated with each work, one essay², and one piece of fiction, all placed together in the exhibition hall. When first entering the space, we come face to face with a piece that usually appears flat, its layers overlapping, in which individual layers actually lift slightly off the flat plane to stand vertically, obliquely, or flowing irregularly in the space. The title, essay, and piece of fiction that make up the text of the exhibition do resonate with the images in the space, but do not function in any directly interpretive way. Rather this approach to reading resonant images and texts resembles the process of recognizing and meeting in-depth the object. When the object—both *the Real and the Possible*—is viewed as *qualitative multiplicity(multiplicité qualitative)* resonant with multiple layers, it is only possible to meet deeply.

—

Space

—

In order to register time, which is invisible, we usually spatialize it. The passage of time is perceived through the passage of space, and the experience of time is framed by the experience of space. However, space and time have different properties—space can be quantified and segmented, while time is a series of qualitative

changes—and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spatial perception and temporal thinking³. It is often said that a space is only completed when it is used; in the same vein, architect Christopher Alexander notes that a certain “Quality Without a Name” is formed via the repetitive lifestyles and habits of the people who inhabit said space. (“This quality in buildings and in towns cannot be made,” Alexander writes, “but only generated, indirectly, by the ordinary actions of the people, just as a flower cannot be made, but only generated from the seed.”⁴). The ‘events that keep happening’ and ‘repetition’ that characterize the space have an inherent temporality. People who visit the space can experience *affect* when memory-image which is realized from *pure memory(souvenir pur)*, the multi-layers of time that have passed through both the space and person, intertwines with perception. The light of the space, moving with the passage of time during the exhibition, highlights each side of the space in turn, helping us think more temporally. At the same time, a place where the layers of time have been excised is described as a structure disconnected from past and future alike, a product of the “re-start culture” and “invisible garbage culture” defined in the artist’s essay, *Standing and Sitting at the Same Time*.

—

Person

—

The discussion of space and time expands to relationship-building with others via the images pursuing a more atypical formality alongside *The Onion*, a piece of fiction written by Ro himself. In the same way that fully perceiving a place is to

1. Pascal Bruckner, *The Triumph of the Slippers: On the Withdrawal from the World*, Polity, 2024.

2. The essay *Standing and Sitting at the Same Time* by Chris Ro is based on the essay *Yesteryear. Both Past and Future* by same author as part of the exhibition *Writing Writing* in West Den Haag, the Netherlands, in 2020.

3. I refer to part of the book *Matter and Memory: Movement of Repetition and Difference* written by Jaehee Kim, and part of the article by Gang-san Jeong, an art researcher, published in *Critic-al* in 2019. Jeong wrote about Henri-Louis Bergson’s discussion about the spatialization of time in Bergson’s book *E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conscience*, published in 1889.

recognize the layers of time inherent to that space, meeting and having a relationship with another is to perceive that other as a composition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surround each individual, as well as the accumulation of past and present (which is, of course, differentiating itself into the past even now, with each passing moment). As such,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another requires a plentiful investment of one's own time in said other. In *The Onion*, this process is seen as a somewhat exaggerated dramatization of "enforcing long-term dating by official law." On the other hand, it is easy to lead to the mistake of objectifying or otherizing the other when overlooking this—quite cumbersome—process and judging the whole only by parts through flat, on-screen images. No surface layer, as one aspect captured in a moment, can ever constitute the real person as a whole; the other reduced to one flattened image will always miss the mark, inevitably deviating from formative perfectionism—the image flowing on a still screen, a trajectory of movement that remains like a shadow, a winding line, a sparse surface that blurs boundaries, emptier than not.

—

Our facility with direct experience of the real is bound to weaken over time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at surrounds us. Even now, the experiential is easily replaced by what Pascal Bruckner calls actions like "sitting on the couch with slippers and exploring the world in comfort."⁵ What if the process of relearning to build relationships with real others/objects, beyond our sphere of comfort, might start with an attitude of looking at others/objects as multi-layers accumulated over time? Real and direct

experience is never one aspect reflected on a flat screen; it is the inconvenience of allotting sufficient time to real others/objects. When you go inside the epidermis, which often seems not to exist, what you ultimately meet at the end of the gaze will be the "Center" that sits underneath all the multiple layers. It may be hurt or broken, from time to time, but it is also the heart that indicates "Love."

4. Christopher Alexander, *The Timeless Way of Build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5. Pascal Bruckner, op. cit.

Standing and Sitting at the Same Time.

Chris Ro

—

The following is an edited version of an essay, Yesteryear. Both Past and Future., originally published for the Writing, Writing exhibition curated by Ian Lynam at West Den Haag in the year 2020.

—

Sadly, I have forgotten many things. And I continue to forget many things. A large amount of knowledge, concepts learned from my college experience, have all disappeared. Many of the books I've read, the lectures I've attended are just foggy memories now. Almost dreamlike. Not clear. Despite this large disappearance of knowledge, there are some things that have stayed with me. And it is a curious process to identify what bits of knowledge have stayed with me and why. Even after all these years, what goes and what stays? The roots of this project reside in some of the thinking of architect, Christopher Alexander¹. I became familiar with the writing of Alexander in college and for whatever reason, those things he thought and was absolutely convinced of found a strange home in my psyche. You might say there sits a couch or sofa in my upper brain lobe. And these thoughts just came inside. Without knocking. And these thoughts plopped themselves on this furniture in my brain and made themselves at home. These thoughts never left. And for whatever reason, I was happy they were there. They began to inform my own set of convictions and observations of the world. As a sometimes participant of this ebb and flow of life, I had often mused and contemplated similar

notions on my own. But after becoming familiar with his writings, these thoughts and observations almost became beliefs.

Looking back, it is still perplexing that these thoughts found such residence in my psyche. Back then, I was, as some might say, a student who was heavy on form, light on theory. And more specifically, light on conceptual thinking. For me, the works of say, the then Diller Scofidio studio² or Morphosis³ were all that really mattered. Captivating. Mind-boggling. Visually dramatic. In all ways. This was the kind of work that really got me excited. By the beauty. By the shapes. By the surfaces and the facades. At that point in time, I cared less about the rich world of thought that was often swirling around just outside my ears and my eyes. That was me then and sometimes, I have to admit, this is me still to this day.

—

Despite this proclivity, there was something that resonated with me though when I met Alexander in the A4/letter-sized, photocopied re-prints of course readers that I purchased every semester. Most of the time from the same copy shop and at the same time every year. These readers had nothing exciting about them. No form here. No glorious pictures. No pictures of work. Just text with a few random images of places, examples from around the world. But strangely, I remembered these particular texts. I can firmly say what I remembered was definitely not necessarily visual or form-based. Seeing the actual built work of Mr. Alexander did not create much excitement. Even today, with slightly more matured vision, it still does not stir any emotions in me. I can't jive with it in all honesty. It is actually missing 'that'

1. Christopher Alexander is an architect and architectural theorist. He taught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2. Diller Scofidio + Renfro is an architecture firm based in New York. At the time of this writing, the partners were originally Elizabeth Diller and Ricardo Scofidio.

3. Morphosis is an architectural design firm based in Los Angeles, California. Famous for their dramatic flair for form. <https://www.morphosis.com>

form which excited me at the time. But what intrigues me exists in the bones. The structure or body of these thoughts. One might call it a kind of conceptual dirt or soil. Something that underlies his work and thoughts continue to fascinate me. The ideas of which he was certain of, that convinced him. These sit with me still.

—

Seoul, is a city of what I would call a kind of ‘invisible’ garbage. There is garbage. Lots of garbage. We throw it away, but we don’t see what becomes of it. It becomes invisible. And this leaves us feeling less responsible—less worried about its outcome and where it may be going. And in turn, this drives a certain kind of behavior which I would like to call “re-start culture”. Erase, throw away and re-start.

—

Seoul is definitely not alone in this. To say that it only exists here is not my intention. Actually, we all kind of live in cultures like these all over the world. Out of sight, out of mind. When it is gone, it is gone. But I currently reside here in Seoul and the observations and my thoughts on both space and life are here in this city. And to me, this kind of ‘invisible’ culture seems to have a particular manifestation here that is quite palpable and sits with me particularly in tandem with Alexander’s thoughts.

—

So let’s continue to talk about Seoul. Mr. Alexander often ponders the existence of a concept where buildings can grow. Perhaps even cities that can grow. An architecture that can age with time. That can fit into its environment. That is one with its surroundings. The basis of this, as I have learned, has also deep roots in Korean society, history and traditional aesthetic thinking: harmony with the landscape and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I think it’s a beautiful sentiment: a building that can grow and become

old with its place. A building that fits within its surroundings. Perhaps, with such thinking, what we create might not be waste. What we create could be something that becomes a permanent part of the earth. The world. It is a truly beautiful idea. But this concept, perhaps was something more akin to behavior and life, before industrialized Korea. Today, similar to the past seventy or so years, there exists a kind of raging, rapid economic growth. Where expansion and wealth have created concrete jungles with sometimes, very little sense of place. It’s an environment that continues the aforementioned ‘invisible’ garbage culture.

—

Build and Delete.

Build and Delete.

Build and Delete.

—

We often put up buildings that do not grow. They exist and then they cease to exist. They are built and then they are gone.

—

There is a concept here called *jae-gaebal*⁴ in Korean, which can be perhaps best explained as a type or variant of ‘urban re-development’. One could perhaps interpret it as a cyclopean variation of gentrification, though it’s a different breed of development in my eyes. Many of the residents of particular neighborhoods which might be up for re-development welcome it—they welcome both change and welcome development. In the jae-gaebal process, a typical situation is that the developing conglomerate purchases the home/building/properties of existing residents. The residents are provided pure cash.

4. Jaegaebal is a term for what can be described as a public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gram. Some also call it simply urban renewal. It began in the 1970s as a means to handle squatting and illegal housing developments and has now come to define a wide variety of redevelopment concepts.

Their former residences are then bulldozed and the entire neighborhood vanishes. All that is left is dirt.

—

Build and Delete.

Start.

Over.

Again.

—

What comes in the former neighborhood's place is a giant complex with apartments/condominiums up top and some kind of plaza/commercial/retail development down below. The former residents of these neighborhoods are happy. They accrue wealth with the snap of a few fingers. There is no complicated re-modeling, reconfiguring of property lines, or any burdens or fussing. It is just a clean wipe. Perhaps more importantly, it is also a modest but quantifiable victory. As their previous property was on the edge of being unsellable—most likely in a part of town with nothing particularly positive on the horizon and a situation where the value of their homes would never rise. But now they are able to sell and move on. They might sell at a decent price, use this money to move to another neighborhood, and ironically, perhaps start the cycle all over again.

—

Build and Delete.

—

So what happens here? Neighborhood after neighborhood disappear in their entirety. Shortly thereafter, an apartment complex suddenly stands in this space with no connection to any past. No connection to anywhere—this complex pretty much arrived from nowhere. No past and perhaps, along the lines of Alexander's thinking, something with no future either.

—

The new complex exists for this time being and later quite possibly may also one day be destroyed or replaced. Even large scale apartments have been demolished and cleared. And in this framework, these are perhaps what can be described as buildings that cannot grow. A building that exists apart and separate from its environment. A building that has no relation to its environment. A building that could pretty much be plopped down into any setting, any city, anywhere. I see this in countless examples of Korea's shin doshi—satellite cities outside of preexisting urban areas that began completely from scratch in often empty, tree-filled regions with very little existing residencies or structures in that area beforehand—similarly rapidly-developed complexes/urban developments rising out of nothing.

—

And the reality of these complexes are they are built rapidly. Sometimes with extremely economical construction methods. Such methods also influence a process where these buildings often age fast. And sometimes, unfortunately, they also age poorly. And in such case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they might need to be demolished rather than built up or built out. This is the type of design that Alexander was concerned about: buildings with no past and, again, no future.

—

So what sits opposed to this in contemporary culture? How did we get here? And how does this concept connect back to the work that I am interested in now? As far back as I can remember, the pure exploration of form was something that always captivated me. Pure exploration of visual form. It is a precious moment, a precious time. This process of finding.

—

Seeing where it goes.

Feeling where it goes.

Allowing the process to take over.

—

Recently, my explorations have also integrated that which I think is missing in this world of “build and delete”.

—

Signs of life.

Signs of texture.

Signs of being.

Things that resonate or could perhaps grow and withstand the signs of time or change.

—

In Alexander’s writings he often notes the importance in what he describes as moments of life. He calls them “Centers”⁵. Centers may be places, spaces, or structures that allow for life to pass in or pass through. I tend to envision Centers as ‘layers’ in some ways: Texture. Grit. The things that happen over time or through time. For this is what happens in life: Steps. Gradients. It is not direct or hard lines that create connections—progression occurs through transitions. Transitions take place in steps. In motion. Over time.

—

My favorite neighborhoods here in Seoul have this quality of the transitional. The liminal. They are sitting someplac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These neighborhoods ironically were ‘unlucky’ and were sometimes not eligible for re-development, or there was some other issue that prevented the Build and the Delete. These neighborhoods often consist of winding paths, alleys, one or two floor houses(*dandok jutaek*⁶) and *villas*⁷. Villas

are often the unlucky bastard children of the high-rise apartment, as they are never given the recognition as a ‘real’ residence of value. The villa, in the Korean parlance, is typically a multi-unit building consisting of residences for families and individuals. They typically are considered less valuable than apartment/condominium units as they do not rise in value over time. A villa is a type of residence for the slightly-less-than-middle class, but these structures in tandem with Dandok jutaek have become home to some of the wonderful layering and textures that only time and life can provide. Dandok jutaek are sometimes quite expensive and do not follow the economic system of villas, but these kind of residences are often found together in these more human scale environments. In neighborhoods where both Villa and Dandok jutaek exist, somehow through no official long term planning or consideration we can often find human, very life-like spatial experiences. Sometimes the first floor or the garage or car park of these structures are used as a leasable space for restaurants, cafes, retail or artist/design studios. The crucial concept here is that these spaces arise from what is existing. There is nothing that is coming from nowhere. Sometimes the street or the grid of the street has existed for decades. There is a connection to the past and a human scale to the experience of such neighborhoods.

—

There is for sure a shared love of these neighborhoods, but the aforementioned mega-complexes are still the preferred choice of investment and living. If any resident would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types of neighborhoods, a large majority would

5. Christopher Alexander, *The Nature of Order: An Essay on the Art of Building and the Nature of the Universe, Book 1 - The Phenomenon of Life*, Center for Environmental Structure, 2002, Pg. 83.

6. The dandok jutaek is another word for a detached house. In western countries sometimes they are referred to as single family homes but in Korea, sometimes they can house several families in one residence.

7. The villa is typically a several unit building consisting of residences for families and sometimes individuals. They typically are considered less valuable than apartment/condominium units as they do not rise in value over time.

choose the apartment complex. Not necessarily because of the experience of the neighborhood(although some do prefer this) but more so because of the investment and the economics. The apartment complex is almost always the better investment.

—

I am and have been continuously fascinated by these small scale neighborhoods. The apartment complex has yet to provide for me some of these scaled, spatial or atmospheric experiences. The apartment complex has yet to provide me with these layers. But these small scale neighborhoods, there is something about the sensations they provide, the humanity that I can feel in them, and the transition between past and future that are very alive here. Hard to describe but extremely palpable. These spaces makes me think. And feel. And these thoughts and feelings are the reasons that I began to be curious about similar manifestations in the work that I am exploring to this day.

—

I have recently been questioning how different methods of form-making could work with layers, space and texture. How do you create the visual equivalent of Alexander's "centers?" How do you create the visual equivalent of transitions—attributes that take place not through distinctions, but more so through the lens of fuzziness or softness?

—

Processes that are less direct.
Less hard-edged.

—

I think some of the push for this body of work comes after years of using the computer for everything. Perhaps working with the computer is conceptually similar to the aforementioned buildings with no future or no past. Computers also work along the Build and Delete model. They are built for speed. And efficiency. Create

a file, then delete it. We often Discard and Delete because it is so easy to make new things. We all use similar computers. We are all using the same software. This software is specifically created for precision and speed. And under these conditions, it seems like the opportunities to express the fuzziness of life are fewer and farther between.

—

It is as if Christopher Alexander is speaking silently to me here and there in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He has been perhaps speaking to me for years. And has created this yearning for something else. I began to tire of the exactness of design, the precision of the computer, the acumen of our processes using the computer, the binary world of ones and zeroes. I was tired.

—

I wanted something else.
I was curious if another world existed?
A tertiary world?

—

A while back, an observant friend of mine, while perusing some of these recent fuzzy experiments I had been working on, remarked that he could 'hear' things from my work.

—

I was pleasantly astounded.

—

Hear things? Hear 'what'? There was no sound. I had never thought of sound nor was there physically any sound in the work that I was doing. What was he speaking of? How could he hear things? How is that possible? If it was possible, how awesome is that—the notion of hearing things with one's eyes. The fact that he could 'hear' something from the form that I had made was exhilarating. Wondrous. Working as I do in two dimensions, both

static and in motion, there was never any sound—or at least no conscious sound, but this observation of his, a simple one at that, was so novel. I thought it exciting and perhaps more important, liberating: creating sounds without sound.

—

For as far back as I can remember, for every piece of form that I made, people demanded a corresponding meaning:

—

Why does this form exist?

Why did you make this thing like this?

What were you thinking when you made this form?

Why is this form like this?

—

And when I had no meaning, when I had no particularly deep thoughts, I always felt incredibly guilty.

—

I had created this thing with absolutely no thought in mind. I had just let it come to me. And I felt guilty.

—

Everybody wanted something more: clients wanted to know what everything was supposed to mean. Whether my explanation was ever heard or not, to them, they wanted meaning. Similarly, teachers, professors wanted to know what I was thinking.

—

Often, it made me feel terrible—for sometimes I just make. (And there may not be much more than that.)

—

Liberation. Suddenly, the connection between sound and form was so freeing, so emancipating. I began to think of musicians and the processes by which they work. I began researching the thoughts of say, Bill Evans and Ryuichi Sakamoto and so many others. The deliverance came in these moments. People never

asked these artists why this particular sound was created, what this sound means, or what they were trying to say with this particular sound. There is an acceptance of the sounds for what they are and an openness to interpret said sounds.

—

And I found great freedom in this—perhaps, just perhaps, I had created something like sound.

—

So I have been exploring this liminal world of sound without sound: Hear no evil. See no evil. Speak no evil. This whole process is counter-intuitive in several ways. It makes no sense in some ways to explore things like this through print or motion. But for this process, what I might call Alexander-ian, it felt like the right way to explore. It felt transitional. It felt less precise. Less pointed. It felt fuzzy.

—

How do we feel things? How do we intuit transition? How do we create less finite lines, definitions, and divisions?

—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crackles of the analogue and printing are also counter-intuitive, as they take time—time the computer has deliberately sought to eradicate. It is a lengthy period of time that the computer wants no part of. Many of these studies are both counter-intuitive and time-inefficient. The goal was that there was no goal. If there was something, it was pure curiosity. Curiosity to see where and how a certain sense of life might exist: a certain connection between past and future.

—

In *A Pattern Language*, Alexander poetically refers to a concept he calls, “something roughly in the middle”—middle places—stages that allow for these layers and transitions to occur⁸.

And this has become the working process. Sometimes it is an assemblage of moments, of ‘sounds’ based upon something roughly in this liminal area: moments of transition. Moments that have found places on different materials; explorations of the layers, spaces and in-betweens that give this concept of ‘life-giving’ to a particular form or experience.

—

I wanted something less precise. I wanted to make something that was transitional—something that could grow over time. Something that could maybe, perhaps be part of someone’s environment. Something that could be part of a place: a gradient, a living gradient. Or better yet, something that could just be itself.

—

Not just be thrown away.

Not built to be deleted.

Something with both a past and a future.

Both standing and sitting at the same time.

작가

크리스 로

—

기획

신재민

—

자문

김연임

—

집기 제작·설치

중간공간제작소

(김건태, 민덕기)

—

평론

추성아

—

그래픽 디자인

어디어프렌드

김준석

—

번역·편집

김연임

신재민

이지원

마야 웨스트

—

사진

홍기웅

미스터킴

—

계획 도움

김준석

Artist

Chris Ro

Curator

Jaemin Shin

Advising

Yunim Kim

Structure·Installation

In-between Space Lab

(Guntae Kim, Dukki Min)

Critic

Sungah Serena Choo

Graphic Design

ADearFriend

Juneseok Kim

Translation·Editing

Yunim Kim

Jaemin Shin

Jiwon Yi

Maya West

Photography

Kiwoong Hong

Mister Kim

Planning Assistant

Juneseok Kim

오픈링 협력
Studio Practice
Makes Practice

—

주최·주관
신재민

—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홍익대학교
버드나무 브루어리
스튜디오 익센트릭

—

이 전시는 2024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24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
버드나무 브루어리, 그리고
스튜디오 익센트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Opening Collaboration
Studio Practice
Makes Practice

Organized and Hosted by
Jaemin Shin

Supported and Sponsor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Foundation of Arts and Culture
Hongik University
Budnamu Brewery
Studio Eccentric

This exhibition was suppor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Foundation
of Arts and Culture, the 2024
Hongik University Research
Fund, Budnamu Brewery,
and Studio Eccentric.

Lost, accumulated, and misplaced material
소실되고, 누적되고, 어긋난 물질
44 Pages 120 x 243mm
accumulated, 누적되고,
and misplaced 여긋난 물질
material



소실되고, 누적되고, 어긋난 물질
추성아

—

“어딘가, 여기 아래, 어느 정도 안쪽, 모든 것 아래, 하지만 아직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여럿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며, 천천히 뛰고 있는, 끊임없는 그렇지만 때로는 부서진 마음들.” 형용사, 접두어, 서술어 등 구와 절이 파편적으로 나열된 이 비문은, 완성된 구조가 아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유닛에 가깝다. 크리스 로의 전시 제목들은 숨겨진 퍼즐을 발견하기라도 하듯 거꾸로 읽었을 때 반반의 확률로 유사와 반복, 동시성, 그리고 모순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한단 말인가? 긴긴 전시 제목이자 마치 작품의 부제와 같은 이 문장을 먼 발치에서 보면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듯 하지만, 방향 감각을 상실한 주체로서 주변 것들을 파편적인 시공간 위에서 감각하고 그 변수들을 수용하도록 내밀하게 우리에게 손짓한다.

—

크리스 로의 지난 전시 제목들은 대체로 흩어진 문장의 부분들로 대상 혹은 상황을 은유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왔다. 이는 개인의 뿌리에 대한 회색 지대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작가의 입장으로 지난 십여 년간 서울에 거주하면서 누적된 한계와 적응이 낳은 유머에서 비롯되었다. 이 유머는 관대하고 냉소적인 태도가 복잡하게 얹히며 낳은 유머다. 그에게 유머로서의 언어는 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기술 도구로 언어가 유머로 발전했을 때, 모국어의 허들을 지속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태도이자 작품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종착지이다. 그의 일상에서

모국어는 기술적으로 여러 레이어와 구체성이
누락되면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갑갑함과도 같다. 이와
같은 감각은 누락된 언어의 틈을 보완하기 위해 언어
자체가 서사와 시각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물리적인
몸짓으로 전유된다.

—

이 과정에서 작가가 서사를 구축해 나가는 세 개의 단서,
그곳의 중심에는 ‘도둑’이라는 대상이 있다. 2023년에
발행된 세 편의 글은 크리스 자신 혹은 주변에서 출발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교묘히 오가며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법한 체념과 적응, 그리고 수용에 관한
태도를 이야기한다. 세 편의 이야기는 자기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빼앗는 행위인 ‘도둑’에 비유되는데, 이
도둑은 무형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계 속에 조응하는
도둑이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작가의 도둑에 관한 단편
서사를 소환하고자 한다. 그것은 세 개의 글이 크리스의
매체 탐구를 뒷받침하는 일종의 구조이자 매체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 속
텍스트의 실재는 의도적으로 환원과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 과정은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두
개의 축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동시에 은밀하게
맞물려서 형태, 표면, 물질, 색의 조형 언어와 시간, 상황,
그리고 유머라는 관계항을 구축하게 된다.

—

크리스 로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로 조금 더 선명하게
선과 면의 레이어와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틈을
발견하고자 하는 대상 간에 상호연결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작가에게 소소한 도둑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웠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행위가 주는 은밀한 상황이 자신의 작업 태도와

유사하고, 작업 과정에서 그가 선호하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과 닮아 있거나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과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작가가 시도하는 텍스트와 이미지는
그 몸체가 분리되어 있어 서로를 훑치려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그 과정에서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다수의
쉽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쉽표는 문장과
문장 사이를 끊어 주기도 하지만 앞뒤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제목과 텍스트의 중심에
반복적으로 표기되는 쉽표는 시간의 지속성을 내포하며,
잠시 쉬어가기 위한 시간 전후의 단차를 줌으로써
작업에서 앞서 예고하는 도구가 된다.

—

이미지 사이에 충돌하게 되는 관계항에서 매체가 주는
직관성은 크리스 로가 봉착했던 상황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작가는 표면 위에 안착되는
물성과 그 흔적을 구현하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린넨과 종이, 비닐, 매쉬, PVC 등 다양한 소재와 두께를
갖는 산업 재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집합과 여집합의
화면을 구성한다. 그의 작업에서 반복과 중첩은 화면과
공간, 그리고 동선을 재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다. 화면 위에 형태는 꽤 여러 번에 걸친 중첩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의외로 작가는 보다
담백하게 발색과 중첩의 효과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에 횡수로 화면 위에 바르기와 그리기의
몸짓을 취한다. 매체가 갖고 있는 이러한 형식의 태도는
질서와 질서 바깥을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조심스레
오가며 크리스 자신 혹은 주변을 관찰 혹은 관찰하기
위한 일종에 수행적 태도와 가깝다. 이로써, 작가에게
이와 같은 작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된 소실되고, 누적되고, 어긋난 시간을 시각적으로 구현할 방법을 탐구하는 순간들일 것이다.

—

그렇다면 크리스 로에게 있어서 물질은 무엇인가? 신체의 움직임을 최대치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 화면의 크기를 결정한 후 만들어지는 형태는 신체가 즉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직관적이다. 실크 스크린의 판화 기법은 탁본을 뜨듯이 원형에서부터 서서히 잉크와 형태가 소멸하는 시간성을 내포한다. 이 과정이 작가에게 제법 매력적이다. 그러한 이유는 자신이 표현한 순간 진실되게 담기며, 다음 단계의 시작과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변수의 상황과 마주하는 동시에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한 작가에게 화면과 물질 사이에 조형적으로 구축되는 형태와 질감은 날카롭고 명징한 화면 위에서 제한된 제스처로 작업하는 범주 바깥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몸짓의 최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크기의 바탕 위에 축적시키는 표면 위 형태와 구조의 제작은 보다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끄는 과정이 회화적이면서 진솔한 제스처로 개입하게 된다. 작가가 정한 화면의 크기는 신체 바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어진 공간의 안팎을 오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꾸려 나가기 시작한다.

—

이렇듯, 작가의 작업과 마주하기 전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말’들은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한 그에게 익숙한 서체의 시각적 조형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필수 불가결하게 분리될 수 없는 문자의 모양과 구조는

작업의 또 다른 축이기도 하고 이미지를 뒷받침하는 지지체이다. 이와 더불어, 이것은 작품을 가까이서, 동시에, 먼 발치에서 거리를 두고 읽어낼 수 있도록 관객에게 제안하는 이미지에 도달하는 선언과도 같다. 반면에, 공간에 가장 먼저 전면으로 접하게 될 텍스트가 배제된 형태, 물질, 구조는 그가 표현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여러 겹의 질감과 색이 때로는 납작하게, 혹은 입체적으로 흩어지고 집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재현의 방식에서 단서들이 소거된 추상적인 형태로 남겨진 물질로, 말이 아닌 시각적 몸짓으로 구현되고자 하는 작가의 은밀한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물질들과 추상화된 이미지들은 텍스트 없이는 신체적 운동에 불과한 움직임의 결과물로 존립할 확률, 혹은 순수 형식 그 자체일 수 있겠다. 이러한 가정 하에 우리는 이 글의 첫 문단에서 크리스 로가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기나긴 제목들을 다시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토록 작가는 왜 문장의 나열과 분리되어 따라 붙는 서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 생각해보면, 자신이 공감하는 혹은 갈등하는 현실을 언어를 매개로 투영하고, 최종적인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이 그의 방법론이지 않을까 싶다. 이렇듯, 크리스 로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언어와 물질은 서로가 은연 중에 지지체가 되어 작동하며 서로의 것을 훑치려 한다. 그리하여 작가는 특별한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사소한 사건들에서 사실과 허구의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발전하며 다양한 시선을 제안한다.

어딘가,
여기
아래,
어느
정도
안쪽,
모든
것
아래
하지만
아직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여럿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며,
천천히
뛰고
있는,
끊임없는
그렇지만
때로는
부서진
마음들.

Somewhere,
Here
Below,
Somewhat
Inside,
Beneath
It
All
Yet
Close
Enough
To
Hear,
Sleeps
Several
Silent,
Whispering,
Slow
Beating,
Constant
Nevertheless
Sometimes
Broken
Hearts.

Vanished, Accumulated, and
Misaligned Materials
Sungah Serena Choo

Somewhere, Here Below, Somewhat Inside, Beneath It All Yet Close Enough To Hear, Sleeps Several Silent, Whispering, Slow Beating, Constant Nevertheless Sometimes Broken Hearts. This ungrammatical sentence, consisting of fragmented phrases and clauses rife with adjectives, prefixes, and predicates, presents itself more like a unit of some greater whole, functioning organically, than a complete structure in its own right. Read the title of a Chris Ro exhibition upside down, like some hidden puzzle piece, and we face a 50/50 chance of encountering analogy, repetition, synchronicity, and contradiction. So where, then, does this all lead us? Step back to view it from a distance, and this sentence — this long long exhibition title that is also rather evocative of a subtitle, perhaps for a specific work — seems to describe a specific situation; but in actuality, it is a delicate beckoning, inviting us — as disorientated subjects — to perceive the world around us against this fragmented space-time and accept the variables in play.

The titles of Ro's previous exhibitions were primarily fragments of scattered sentences, deployed as guides, of a sort, to metaphorize a given object or situation. These speak to a sense of humor that has developed alongside the limitations and adaptations accumulated over the past decade of living in Seoul as an artist navigating the question of his own personal roots but only able to do so in a kind of gray zone, from a distance. This humor is borne of a complex intertwining of generous and cynical attitudes. For Ro, humor as a language is the most basic tool necessary in a relationship; as such, when language advances into humor, it both serves

as the most sustainable approach to overcoming the hurdle of his mother tongue and functions as the fundamental starting and ending point of his work. In his daily life, this mother tongue is defined by elision, multiple layers and specificity technically lost, like the frustration of hitting a wall again and again. To compensate for these missing linguistic gaps, the language itself is here appropriated as both a narrative and a physical gesture that can be embodied visually.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is narrative, the artist sets forth three clues — and the object at their center is called “thief.” Published in 2023, the three texts in question blur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fiction, based on Ro's own life experiences or those around him, delving into attitudes of resignation, adaptation, and acceptance that we are likely to experience in our own lives. The three stories are likened to a “thief,” as in someone who commits the act of taking something that does not belong to them; this act of theft, in turn, is one that exists in a state of temporal, spatial and relational intangibility. Here, I would like to invoke Ro's own short narratives about theft. This is because the three texts provide a kind of structure that underpins Ro's exploration of the medium and also a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his approach to the medium. Within this structure, the existence of the text is deliberately subjected to a process of reduction and abstraction. This process, in turn, creates a physical distance between the two axes — text and image — while at the same time covertly interlocking them, establishing a relatum of form, surface, material, and the formative language of color, not to mention time, context, and what we call humor.

Using minimal structural components, Ro helps us to see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ose who

strive to discover the gaps that occur between these layers of lines and planes. If we consider what it was about the concept of the petty thief that so intrigued the artist, we might posit that the stealthy situations that arise from such unexpected incidents and acts actually parallel Ro's attitude toward his own work; they may also resemble the uncontrollable variables he prefers to work with, or even those unpredictable twists one encounters even in more or less controllable situations. At this point, Ro's attempts at both text and image are divided into separate bodies, and we glimpse an attempt between the two to steal the other. The comma — a favorite of the artist — plays a very significant role in this process. Here, the comma is used not only to break up sentences but also to connect what comes before and after. What is more, the repetition of commas in the title and in the body of the text suggests the continuity of time, becoming a tool of foreshadowing for the work itself by providing a pause before and after for reflection.

—

In the relatum of collisions between images, the intuitiveness of the medium can be an opportunity for Ro to resolve the situations he encounters. The artist constructs a canvas of complements and intersections that occur between various materials like linen, paper, vinyl, mesh, or PVC, and thicker industrial materials, creating a foundation for giving shape to the materials that settle on the surface, as well as their traces. In his work, repetition and overlapping become important elements in the reconstruction of canvas, space, and trajectory. Though one might expect the forms to overlap many times, the artist surprises us, keeping to the minimum necessary number of bodily actions — painting, applying — on the canvas in order to achieve the desired effects of color and palimpsest as clearly and simply as possible. This formal manner

of the medium reads almost like an ascetic practice on the part of Ro himself, moving within and without systems of order, sometimes boldly, sometimes cautiously, to observe, or perhaps fulfill, himself or his surroundings. As such, for the artist, working in this way must amount to moments of seeking a way to visually embody the lost, accumulated, and misaligned time that comes from his own narrative.

—

So what, then, does the material mean to Ro? The forms — created by determining the size of the canvas according to the body's maximum range of movement — are intuitive, inviting the immediate engagement of the body. The printmaking technique of silk screening suggests a temporality in which the ink and form gradually dissipate from the original, like a rubbing. We know that the artist is quite taken with this process itself. Perhaps this is because it allows Ro to be true to the moment of expression, and to have some control over it, even while facing a situation of many variables where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next step remains unpredictable. For Ro, who is also a graphic designer, the forms and textures that are formatively constructed between screen and material are indicative of an attitude that seeks to extend beyond the confines of working with limited gestures on a sharp and defined screen. The production of these surface forms and structures, which accumulate against a backdrop sized to accommodate the largest possible bodily gestures, leads to a process characterized by improvisation and unpredictability — bringing us into a gestural realm that is as sincere as it is painterly. The size of the canvas chosen by Ro is neither larger nor smaller than the boundaries of his body, but within the range of what he himself can handle; and in moving in and out of this given space, he begins to construct his own narrative.

Similarly, the 'words' we encounter before seeing Chris Ro's artwork are also shaped by the visual formations of typefaces that would be familiar to him as a graphic designer. The shape and structure of the letters, which are inevitably inseparable, constitute another axis of the work and act as a support for the images. In addition, they also act as a kind of declaration, inviting the audience to read the artwork up close and also from a distance. Meanwhile, the forms, materials, and structures that we first encounter upon entering the space showcase the stories Ro sought to express scattered and gathered across multiple layers of texture and color — sometimes flat, and sometimes multifaceted. A substance left in abstract form, clues erased from its mode of representation, this may in fact be the artist's inner desire to be embodied in visual gestures rather than words. Paradoxically, however, these very materials and abstracted images have the potential to exist without text, the results of a movement that is nothing more than physical exercise, or perhaps pure form itself. Operating under this assumption, we return to the beginning of this text and reconsider Chris Ro's repeatedly deployed longer-than-life titles. If we consider why the artist so consistently turns to these narratives that remain separate from the actual arrangement of the sentences, we might suppose that his actual methodology involves using the medium of language to first project a reality with which he is in sympathy or conflict, and transform it into a final image. In this way, the language and material shown in Ro's work function as covert supports for one another, even as they try to steal from each other. Thus, the artist proposes multiple perspectives, evolving from the extraordinary to the mundane, from daily trivialities to a giant mass of fact and fiction.

The
Onion

양파

The Onion 양파

The Yoo Dong Jin Act 유동진법

Exhibition Project Documentation 전시 프로젝트 도큐멘테이션

44 Pages 167 x 232mm

—
The Yoo 유동진법
Dong Jin Act 전시

—
Exhibition 프로젝트
Project 도큐멘테이션
Documentation

양파
크리스 로

—

우리 모두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죠. 수십만, 수백만, 수십억만번도 더 들었던 말입니다. 모든 언론 매체들, 대학 학자들, 그리고 씬 없이 예측과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던 데이터 분석가들까지, 모두 우리가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로. 미래로. 더 이상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가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상황보다 심각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종말. 전 세계가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를 두려워하는 동안,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의 시작과도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늙어버린 사람들. 우리 모두는 이 해결 방법을 알 수 없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수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이 줄어들었고 밀레니얼 세대가 “X도 신경 쓰지 않는다”를 실제로 실현하면서, 더 이상 아이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아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고생을 계속할 젊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것도.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역사적으로, 한국 정부의 국가 정책은 지금까지 꽤 똑똑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꽤 정보에 밝았죠. 상당히 현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층의 관료주의와 무한히 복잡한 정치 속에서, 몇 가지 영리한, 어쩌면 기발한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는 분명 높은 속도의 연결성, 줄기세포 연구, 도시 이동 시스템, 사회 복지와 같은 좋은 것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류라는 추상적인 개념—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현상, 혹은 2020년대 중반 한국성을 띠는 모든 것들에는 한국 정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 베이비’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인 지금, 우리에게 답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답변이 바닥난 것보다는, 사실 답변 자체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늙어버린 거죠. 늙은 나라. 그리고 누구도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2020년대의 정부 정책은 제한적이었고, 대다수의 경우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었죠. 가족 지원 정책, 보육 인프라, 주택 지원 등이 당시 정부의 전형적인 추론, 그리고 이에 따른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는 슬프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그 지원 영역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스마트’ 도시, LTE 네트워크, 심지어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급진적인 개념을 개척해 온 국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책이 이것 뿐이었을까요? 별로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궁극적으로는 매우 무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여전히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해마다 계속 감소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 정부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출산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아직 생각하지 못한 방안이 있을까?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대책 위원회는 상상을 벗어나는 생각을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상자 밖을 생각하는 것. 아마 안에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상자 밖을 생각하는 것. 밖. 상자 밖.

—

2020년대였습니다. ADHD¹ 세대의 진정한 탄생이 일어난 시대. 그 이전의 좀비 대재앙처럼, 하루에 5~7시간 동안 몇 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 클립으로 구성된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스마트폰 중독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중독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중독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보이지 않는 병이면서 동시에 보이는 병이었습니다. 아무도 휴대폰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분명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병이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저녁을 먹는 커플들. 휴대폰만 쳐다보고 대화는 전혀 하지 않는 커플들. 이들에게 대화보다는 휴대폰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훨씬 쉬웠죠.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슬프게도 의식적으로, 몇 분마다 주머니에 손을 뻗어 빠르게 도파민이 폭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참을 수 없는 충동. 심지어 겨우 이메일 같은 것을 위해서라도요. 작은 이메일 한 통. 이메일 한 통? 새 메일이 왔나요? 새 메시지가 왔나요? 슬펐어요. 아주 슬펐죠.

하지만 이게 삶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 세상에 대한 당신의 비전이 실재하게 되었네요. 축하합니다.

—

이 ADHD 세대는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 불가능했죠. 도파민 자극을 원하는 갈망 때문에 몇 페이지 이상 읽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몇 페이지만 읽으면 지루해집니다. 몇 장 넘기자마자 슬금슬금 손이 다시 휴대폰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 ADHD 세대는 실제 사람을 만날 때에도 거의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라이브 공개 행사에서도요. 실재하는, 물리적인 약속들. 아니면 심지어 데이트 중에도요. 이 세대는 당면한 실제 상황에 몰입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손과 마음에는 대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이 가려움증은 휴대폰으로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이 휴대폰과 경쟁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대화, 실제 상호 작용, 실제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아무리 흥미롭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더 이상 휴대폰과 같은 만큼의 흥미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슬프죠. 아주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평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대책 위원회는 이전과는 다른 이 새로운 평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책 위원회는 이 ADHD 현상에 대해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책 위원회가 출산 세대를 자극할 수 있는 경제 대책들에 집중하는 동안, 이 특정한 대책 위원회는 점점 더 낙담하는 사회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집중력이 점점 제로에 가까워지는 사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사회. 정말 슬프게도,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는 사회.

—

많은 발전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데이트에 대한 매우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데이트 과정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200개 문항의 설문조사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트 앱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여전히 ‘소개팅²’과 같은, 시대를 초월한 고전적인 데이트 개념에 의존하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 구성된 이 대책 위원회는 이렇게 서서히 진화하는 데이트 과정과 ADHD가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지속적으로 주의력 부족, 과잉 활동, 충동성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정의는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의 홈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https://www.nimh.nih.gov/health/topics/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adhd>

2. 소개팅은 일종의 타인이 주선한 데이트를 말합니다. 유사한 단어로 ‘선’은 부모, 친척 등이 잠정적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아이들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반면 소개팅은 친구들이 서로의 지인을 소개시켜주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들은 ADHD 세대가 비현실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접하고 있는 세대라는 사실을 발 빠르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짜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지만, ‘실제와 비슷한’이라는 표현이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아니면 하이퍼 리얼? 이 세대는 소셜 미디어에서 100장의 사진을 찍어 결국 100장 중 단 한 장의 사진만 보여주는 인플루언서를 끊임없이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장 중 단 한 장만 선택된 이 특별한 사진은 놀랍게도, 매우 기가 막힐 만큼,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완벽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실재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며, 불완전한 수많은 순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진은 디지털 편집을 통해 완벽보다 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정말 대단히 완벽합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AI³에게 이미지 및 동영상 조작의 도움을 받아 실제 인물을 조합하기도 했습니다. 현실과 초현실, 비현실과 환상의 만남. 그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책 위원회는 이젠 도파민 자극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환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양의 환상 없이 도파민이 예전처럼 솟구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최고여야 했습니다. 몹시 과도하게요. 현실은 이제 2순위였습니다. 실제 사람들은 그만큼 흥미롭지 않았으니까요.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실제 사람들의 이미지는 도파민 작용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기준점보다 한참 아래였죠. 스펙타클함, 과도한 아름다움의 판타지, 감각적인 센세이션. 이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평범이 되었습니다.

이 대책 위원회는 다른 가능한 모든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의력 결핍과 도파민 중독 환경이 아기를 낳지 않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트의 즐거움은 이 하이퍼 리얼리티—초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한 데이트에서조차도, 참가자들은 데이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만큼의 자극을 받지 못했습니다. 번거로웠습니다. 느리고, 너무 몰두해야 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미지와 동영상을 스크롤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고, 이 비현실에서는 더 쉽게 실재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그 이상의 만족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유동진법’에 따뜻하고 진심 어린 환영의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한국 정부의 특정 계획법안은 상징성이나 식별성을 위해 사람의 이름을 딴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란법’⁴은 2016년 암암리에 행해지는 부패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법으로 강제하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의 선한 사마리아인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이 법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3만원 이상의 식품,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식이었죠. ‘유동진법’은 이 대책 위원회에서 수년간 연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데이트 정책이었죠. 연애할 때 최소 일곱 번의 데이트를 하고 나서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일종의 미친 법안이었습니다. 일곱 번의 데이트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며 어떻게 정부가 개인의 데이트나 연애에 관여할 수 있죠? 미친 짓입니다. 그냥 돌았어요. 맞아요. 정부가 시작한 법안이죠. 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실해요.

유동진법은 시작부터 실패할 위기에 처한 듯 보였습니다. 이 법안은 자리를 잡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이 발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냥 미쳤다고 생각했죠. 정부가 지금 뭘 요구하는 거지? 황당해. 터무니없다. 도대체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법이 그렇듯, 법은 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준법적이고 친절하며 순종적인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예의를 지켰고, 모든 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얼마나 미친 짓이든 간에, 제정된 이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이전의 다른 법들처럼, 유동진법에도 순응하고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주얼 데이트, 즉 가벼운 만남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변화했다기보다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데이트라고 인식되는 행위를 할 때 상당히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섯 번의 연속적인 데이트에 대해

3. AI. 인공지능. 인간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언어를 해석하고 생산하는 능력,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생성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제공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 인간 뇌의 일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기계 사용의 연구.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artificial-intelligence>

4.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가 발의한 청탁금지법입니다.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이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뇌물과 선물을 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캐주얼한 데이트 만남으로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불안과 혼란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자연은 적응 합니다. 사람들도 적응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곱 번의 데이트는 사람들 사이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일곱 번의 데이트는 그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미친 법안은 어떻게든 정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평범함이 되었죠.

—

그렇다면 이 법의 바탕이 되는 논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책 위원회에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잘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에 있어서는, 꽤 양립하기 쉽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사랑은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인간 조합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관계에서 그러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현재의 실질적인 형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이는, 기억할 수 있는 한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매우 한국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수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었죠. 한국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은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한 차례 이미 엄청난 성형수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양산했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ADHD는 방정식의 일부였을 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외모 기준과 동시에 맞물려 '정상' 또는 '정상 이하'의 사람들은 연애에 성공할 수 없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정상이란, 외모가 정상이란 뜻입니다.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은 다시 비현실적인 기대와 맞물려 결국 현실의 모든 것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

이 대책 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소개팅'의 실패율이 천문학적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이 '소개팅'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었기에, 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니, 아마 놀라우면서도 한술 더 떠서 조금은 한심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데이트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실패 원인은 앞서 언급한 미적 기준과, 짝아진 집중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이든 아니든, 그 누구도 비현실과 경쟁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슬프게도, 상응하는 참가자 양측 그 누구도 지금의 높은 기준치에 필적할 수 없었던 거죠. 심지어 역사적으로

외모에 있어서 더 '관대'했던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당당히 선언했던 여성들도, 글썄, 이 대책 위원회는 결국 이것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결정했습니다. 외모는 역시 중요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외모는 중요 요소였죠. 키, 부족한 키, 피부색, 치아, 눈, 코, 비만, 탈모 또는 불필요한 모발 성장.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시각적 외모 평가 속도의 가속화, 즉 스와이프 제스처로 100만분의 1초도 걸리지 않아 데이트 거절을 완료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한층 더 외모를 중시하는 현실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 망해버린 세대.

—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법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국가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벌금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추상적이었습니다. 이 법의 힘은 아마도 루머와 소문에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누구는 벌금을 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벌금이 부과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엔 충분했습니다.

—

사회는 적응했습니다. 사회는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변화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나중에 일종의 귀여운 비공식적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법안을 '양파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련의 일곱 번의 데이트를 이어가는 커플들을 보며, 이 과정을 양파의 껍질을 벗기는 것에 비유하기 시작한거죠. 껍질이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더 복잡하고, 더 생동감 넘치고, 더 강렬하고, 때로는 더 많은 눈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양파'라는 용어는 이상하게도 다소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귀엽다. 궁금하다. 살아있다. 강력하다. 사람들은 인간의 껍질을 벗기는 개념적 요소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중심에는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고 손길이 닿지 않았던 어떤 날것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허영심과 집중력 저하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강력하고 강력한 실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양파 비유는 이상하게도 적절했습니다. 양파처럼 데이트 과정이나 인간관계가 반드시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러한 상호 작용은 아름다운, 특히나 '즉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대부분의 데이트는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있었으니까요. 단 한 번의 데이트가 아니라 연속된 데이트였기 때문에, 어떤 종류든 갈등은 사실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데이트가 될 무렵 명백히 탐탁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 혹은 과거 같았으면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어떻게든 더 많은 데이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추가적인 다음 한 번의 데이트는 무언가를 이뤄냈습니다. 또 한 번의 만남. 이상하게도 한 번 더 데이트를 하게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갈등을 극복하게 해줬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트 프로세스에 딱 한 번의 데이트를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한 번의 추가된 데이트를 통해 망가진 것을 고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일곱 번의 데이트는 보통 일정한 주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데이트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끌림이 없었습니다. 이 법이 처음 통과되었을 당시에는, 7일이라는 책무 때문에 사람들이 데이트를 꺼렸기 때문에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끌림이 없었다면, 시작될 만한 데이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적응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화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일곱 번의 데이트 요건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요. 사회적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빅 데이터. 소문. 나중에 진실로 밝혀진 소문. 곧 양파에 대한 소문은, 소문들이 그렇듯이, 마구 퍼져나갔습니다. 이 양파. 너무 궁금한 양파. 이제 이것은 ‘떠오르는 이슈’였습니다. 양파.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요.

“양파를 시도해 보셔야 해요. 생각만큼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제가 무슨 일을 겪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직접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꼭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소문은 허름하거나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파처럼요. 소문에는 모든 걸모습엔 항상 낱것의 진짜 모습, 매혹적이고 어쩌면 아름답게 신랄한 것이 숨어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곧, 양파는 일종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양파를 시도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경험하는 동안에, 양파의 신비로운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 언뜻 보기엔, 또 첫 데이트에서도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그 핵심?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알아내는 데 근접하기 위해선 7일 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것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엿보기 시작하는 데에는 7일이 걸렸습니다. 유머, 따뜻함 같은 추상적인 것들. 부드러움. 친절함. 일반적으로 첫 데이트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개념들. 이런 종류의 것들은 디지털 이미지에서 절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들은 작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양파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보물들이 되었죠. 그리고 낱파가 거둬질 때마다, 이 보물 중 일부는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게임의 레벨처럼.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떠오르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먼저 거쳐본 그들은 흔적들을 찾아보라 말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열심히 찾으면 그것들은 거기에 있다고요. 작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미묘한 것들. 무언가의 흔적이 그 밑에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거기 무언가를요. 그리고 그런 징후가 보이면, 멈추지 마세요. 더 멀리 가보세요. 더 파헤쳐 보세요. 더 나아가세요. 거기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의미 있는 무언가가 그 밑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뭔가 있습니다. 영혼? 어쩌면? 아마도? 음, 영혼까지는 아닐지도 모르죠. 어쩌면 한 인간일지도요. 존재하는 진짜 인간. 누군가. 저 안 어딘가에 앉아서, 이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립니다, 거기서.
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록 1: 위장

사람들은 “양파의 법칙”에 불문율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의 에티켓이자 무언의 의식이 된 규칙은 이 강력한 양파의 과정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요리라는 단순한 행위였습니다. 7일 동안 각 참가자는 서로를 위해 집에서 만든 음식을 한 가지씩 요리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 과정의 일부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요리라는 단순한 봉사 행위가 그 자체로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이지

얇은 사람이라도, 바질 페스토 펜네나 몬터레이 잭 치즈를 얹은 신라면 한 접시를 만들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눔의 마술이었습니다. 감각적 선물의 마법. 맛있는 식사는 가장 파괴적인 논쟁도 치유할 수 있고, 가장 냉담한 인간관계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마법처럼요. 그리고 그것은 일곱 번의 데이트 과정의 비공식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매개체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구의 구원투수처럼, 일곱 번의 데이트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요리를 사용하기도 했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으로요. 어느 쪽이든 요리하는 손도 데이트 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촉각, 미각, 후각. 요리와 감각의 선물, 이 둘은 양파 과정의 일부였죠. 사람들은 우리의 위장이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감을 따라야 한다고요. 이 불문율은 위장이 다른 위장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위는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은 믿을 수 없었지만 위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

부록 2: 세계는 양파를 원한다

양파는 한류, 방탄소년단, 한국 영화처럼 곧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어쩐지 우연히, 놀랍게도 말이죠. 처음에 그토록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 법, 절대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 법이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여겨지던 이 법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임의의 법 하나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 있었는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했죠. 전 세계의 사람들은 양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집중력을 가진 세대를 만들었던 바로 그 소셜 미디어는 이제 양파라고 불리는 이것의 독특함과 특이함을 퍼뜨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 양파는 인류를 위한 반창고가 되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통을 치유했습니다. 시각적인 것에 집착하는 세상의 고통. 외모에 집착하는 역사의 고통. 그리고 이 이상한 법, 이 양파라는 이상한 것이 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필리핀에서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양파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한국 정부의 또 다른 기이한 업적 혹은 승리가 되었습니다.

—

부록 3: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양파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과 이혼율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애 관계, 장기 커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갈등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기가 더 많이 태어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책 위원회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나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데이트 활동에서 배제되었던 사회의 많은 집단이 이제 데이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되어본 적 없는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 행복도가 상승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이 질문은 정부 대책 위원회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기 만남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유동진법)

[시행 2024. 6. 5.] [법률 제246810호, 2024. 6. 1., 일부개정]

—

단기만남금지제도와 042-800-8282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단기 만남을 금지함으로써 일정 기간 이상의 실제 만남을 활성화하고 교제를 목적으로 한 교류 활동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2. “단기”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가. 실제 만남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7일 미만의 기간
 - 나. 실제 만남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그 만남을 반복하는 횟수를 5회 미만 포함하는 기간
3. “만남”이란 이성 또는 동성 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감정적 및 정신적 교류 등 무형의 교류를 포함한다.
4. “실제 만남”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온라인상에서가 아닌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 나. 최소 1시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만남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청렴하게 단기적이지 않은 만남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국민의 공정한 교류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기 만남을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만남과 교류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국민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 등의 책무) 국민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은 만남의 상대방으로서 타인을 대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상대방을 외형만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이미지와 같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 나. 상대방과 실제 만남을 가지는 시간 동안에는 휴대전화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상대방과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남 중에도 휴대전화로 손을 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건 전형적인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만남이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 다. 상대방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라. 상대방을 첫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한 인간으로서의 스펙트럼, 즉 상대방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면부터 최악의 면까지를 모두 경험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해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마. 설불리 관계를 규명하려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순간이 곧 실패의 시작이다. 진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은 명확하게 정의 내리거나 분류할 수 없다.
 - 바. 대부분의 만남이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 사.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최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기대는 모든 관계를 망치는 킬러(killer)이다.
 - 아. 상대방의 드러난 성격이나 외모 외에, 깊이 감춰진 잠재력의 징후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자. 국가가 장려하는 대화와 소통을 지향해야 한다. 단, 때때로 서로 간의 침묵 또한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매우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2. 국민은 준수해야 하는 실제 만남의 최소 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최소 한 번은 샤워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 만남을 수행해야 한다. 다소 어려운 도전일 수 있지만, 만남의 초반에 서로의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경험해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 나. 최소 각자 한 번씩은 서로를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와 감사의 표현은 실제로 마음을 녹일 수 있다. 즉, 요리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감사 표현은 만남의 분위기나 서로에 대한 인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다. 실제 만남의 과정에서 각 국민은 상대방의 표면 너머를 들여다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화와 질문을 하는 것, 그중에서도 삶, 꿈, 열정, 싫어하는 것, 성가신 것, 스트레스, 행복, 취미, 직업, 가족 등에 대한 질문은 좋은 출발점이 된다.

—

제5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담당 기관(단기만남금지제도과)에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 (과태료 부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2. 만남의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자
3. 제5조의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제7조(진실 혹은 거짓) 다음의 어느 하나만이 사실, 혹은 모두 사실이거나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

1. 이 법률은 허구이다.
2. 혹은 사실일 수도 있다.

3. 사실에 가까운 허구일 수도 있다.
4. 허구의 틀은 종종 사실에 기반한다. 허구는 일정 부분 사실을 닮아있기 마련이다.

—

*픽션「양파」의 배경이 되는 이 법률은 실제 법률인 법률 제18576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기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7조에 의거해, 이 법률이 사실인지 허구인지에 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깁니다.

유동진법

참여자들의 생각, 도전, 결론을 기록한 아카이브에서 발췌.

25세에서 54세 사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무작위로 참여.

—

“우리 관계가 처음부터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벌써 두 번째 데이트였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해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시다. 탈출 버튼이요. 필사적으로 탈출 버튼을 누르고 싶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몇 번의 데이트가 더 남아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데이트는 늘 잘 진행되지 않았습시다. 그는 제가 말하는 중간에 자꾸 말을 끊었죠. 우리 사이에 시너지가 생길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데이트에서 그가 요리를 해주었어요. 저를 위해 음식을 직접 만들었죠. 그 맛을 보는 순간, 제 입이 딱 벌어졌죠. 이 허름한 부엌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시다. 그는 살짝 태운 버터와 호두로 뇨끼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게 쉬운 요리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시다. 그의 노력을 알 수 있었죠. 이 음식을 만든 그의 손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었습시다. 처음 한 입 먹었을 때, 이 모든 분노와 후회의 감정이 사라졌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가능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죠.”

—

“저는 책벌레입니다. 저는 항상 책벌레였어요. 그리고 저는 늘 도서관에서 머물렀습시다. 대학 시절은 물론이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도서관은 제 집이었어요. 슬프게도 책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연애의 기회가 늘 저를 스쳐 지나갔다는 점입시다. 과거에 저는 패션이나 최신 미디어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거의 관심이 없습시다. 저의 외모만 봐도 책벌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데이트요? 부모님 친구의 소개로 몇 번의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시다. 물론 그 이유를 알았죠. 하지만 최근에 이 법안이 저의 상황을 바꿨습시다. 문학은 첫 데이트에서 잘 어울리는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더 특별해졌어요. 사실,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시다.”

—

“우리는 일곱 번째 데이트에 도달했습시다. 우리 사이는 꽤나 가까웠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시다.

하지만 잘 안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연애에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잘 안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슬프게도요. 저는 잘 되는 관계를 경험한 적이 전혀 없습시다.”

—

“말도 안 됩니다. 7일이라니요! 저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법은 도무지 합리적이지가 않습시다. 최대 효용을 고려해 최대의 효용을 내는 것, 그로 인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상대방과 10분만 대화를 해봐도 이 만남을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시다. 상대방에게 저를 어필하는 데에는 3분이면 충분하죠. 7일이라니요. 당치도 않습시다. (그리고 애플워치의 알람이 울린다.) 이게 없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시다. 이 조그만 개인비서가 지금은 운동을 하러 가야 할 시간이라고 알려주는군요. (애플워치의 알람이 다시 울린다.) 아니, 이런! 클라이언트의 긴급 호출입시다. 다음 일정에 늦지 않으려면 지금 빠르게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혹시 인터뷰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이에요. 백만 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 하더라도 그와는 잘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정말 못생겼어요. 놀라울 정도로 못생겼어요. 못생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살이 찐 목에는 주름이 있었어요. 앞쪽과 뒤쪽 모두요! 처음 세 번의 데이트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그가 얼마나 놀랍도록 못생겼는지. 하지만 네 번째 데이트부터는 그의 못생김이 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진지했고 다정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는 저를 웃게 만들었습시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요. 그리고 비로소 그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시다. 그의 못생김조차도 사랑스러워졌습시다. 주름이 왠지 귀엽게 보이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으로 접힌 주름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시다.”

—

“첫 만남은 조금 당황스러웠습시다. 그녀는 말이 거의 없었거든요. ‘나한테 관심이 없나?’라고 생각했습시다.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과 몇 번의 식사를 더 하고 커피도 마셔야 하다니. 저는 이 모든 게 시간 낭비 같았습시다. 하지만 벌금을 내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만났습시다. 만나고 또 만났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시다. 그녀는 그저 낮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었다는걸요. 보통 고양이 사람이라고 하죠. 그녀는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보편적인 시간 개념을 초월한 사람 같아 보였죠. 여러 번의 만남을 거듭하며 저는 그녀의 시간 안에서 점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여러 차례의 만남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제가 엘리베이터 스피치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가속화된 삶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동진법!”

—

“저는 쉼다섯입니다. 아주 짧은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16년 전이었죠. 연애는 저를 버렸습니다.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죠. 저는 여전히 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고 있고 안정적인 수입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면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저와 같은 사람의 연애 성공 가능성은 최저 수준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법안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사람을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보통은 첫 데이트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

“저는 서로 간에 약간의 거리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솔직하지 못한 사람인 걸까요? 글썄요. 저는 상대방에게 늘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를 거짓으로 대한 적은 없습니다. 순간에 충실하다고요.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양파 껍질을 벗기 듯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저 자신을 드러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 아래 제 심장을 마주하는 건 조금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를 감싸고 있는 겉모습이 저의 본질을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저의 본질을 감춰주는 걸까요? 저를 온전히 드러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들은 양파 껍질을 스스로 벗는 방법을 모릅니다. 방법을 모르는 채로 어떤 행위만을 강요받는 이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Enough Time For Several Conversations.
75 x 55cm
Acrylic on Polyethylene Terephthalate & Polypropyl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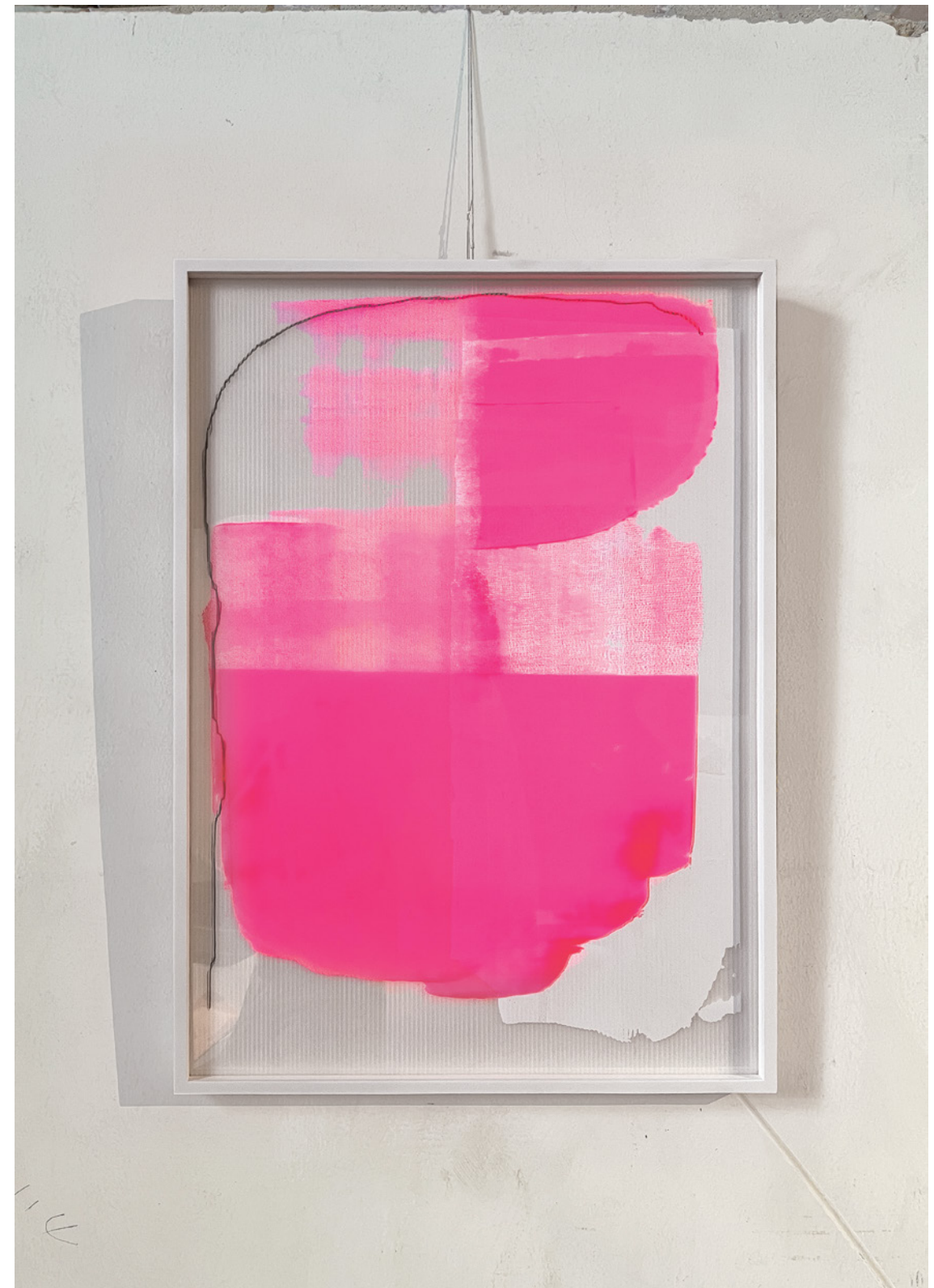
Sometimes Listening. Sometimes Hearing.
73 x 55cm
Acrylic on Canvas



It Took Some Time To Know What Was Right.
It Took Some Time To Know This Was Right.
50 x 40cm,
Acrylic on Polyethylene & Polyethylene



The More Time I Spent With This Person.
The Most Time I Spent With This Person.
75 x 54cm
Acrylic on Polyethylene Terephthalate & Polypropylene



A Conversation Was No Longer Necessary.
80 x 57cm
Acrylic on Polyethylene Terephthalate & Paper



Somewhere, Here Below, Somewhat Inside, Beneath It All Yet Close
Enough To Hear, Sleeps Several Silent, Whispering, Slow Beating, Constant
Nevertheless Sometimes Broken Hearts. Here, Below, Somewhere,
Somewhat Inside, Close Enough To Hear Yet Beneath It All, Sleeps Several,
Whispering, Silent, Slow Beating, Sometimes Broken Nevertheless
Constant Hearts. Somewhat Inside, Somewhere, Here, Below, Beneath It All,
Yet, Close Enough To Hear, Sleeps Several Silent, Slow Beating, Whispering,
Constant Sometimes, Nevertheless Broken Hearts. Below, Here, Beneath It
all, Somewhere, Somewhat Inside Sleeps Several, Close Enough To Hear,
Constant, Sometimes Silent, Slow Beating, Whispering, Broken Hearts
Nevertheless. Beneath It All, Somewhere, Below, Here, Somewhat
Inside Sleeps, Close Enough To Hear, Several, Broken, Whispering, Slow
Beating, Sometimes Silent, Constant Hearts Nevertheless. Beneath It All,
Somewhere, Below, Here, Somewhat Inside Sleeps, Close Enough To Hear,
Several, Broken, Whispering, Slow Beating, Sometimes Silent, Constant
Hearts Nevertheless. Nevertheless Constant, Several Sometimes Silent,
Slow Beating, Whispering, Broken Hearts Sleep Here, Below, Somewhere,
Beneath It All, Somewhat Inside Yet Close Enough To Hear. Constant,
Nevertheless, Sometimes Several Silent, Whispering, Slow Beating, Broken
Hearts Sleep Somewhere, Below, Here, Somewhat Inside, Beneath It All
Yet Close Enough To Hear. Somewhere, Here Below, Somewhat Inside,
Beneath It All Yet Close Enough To Hear, Sleeps Several Silent, Whispering,
Slow Beating, Constant Nevertheless Sometimes Broken Hearts. Here,
Below, Somewhere, Somewhat Inside, Close Enough To Hear Yet Beneath
It All, Sleeps Several, Whispering, Silent, Slow Beating, Sometimes Broken
Nevertheless Constant Hearts. Somewhat Inside, Somewhere, Here,
Below, Beneath It All, Yet, Close Enough To Hear, Sleeps Several Silent,
Slow Beating, Whispering, Constant Sometimes, Nevertheless Broken
Hearts. Below, Here, Beneath It all, Somewhere, Somewhat Inside Sleeps
Several, Close Enough To Hear, Constant, Sometimes Silent, Slow Beating,
Whispering, Broken Hearts Nevertheless. Beneath It All, Somewhere,
Below, Here, Somewhat Inside Sleeps, Close Enough To Hear, Several,
Broken, Whispering, Slow Beating, Sometimes Silent, Constant Hearts
Nevertheless. Beneath It All, Somewhere, Below, Here, Somewhat Inside
Sleeps, Close Enough To Hear, Several, Broken, Whispering, Slow Beating,
Sometimes Silent, Constant Hearts Nevertheless. Nevertheless Constant.

어딘가, 여기 아래, 어느 정도 안쪽, 모든 것 아래 하지만 아직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여럿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며, 천천히 뛰고 있는,
끊임없는 그렇지만 때로는 부서진 마음들. 여기, 아래, 어딘가, 어딘가 안쪽,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아래에서 속삭이고, 조용히, 느리게 뛰고,
때로는 부서지지만 변함없는 심장이 여러 개 잠들어 있습니다. 어딘가 안쪽, 어딘가,
여기, 아래, 그 모든 것의 아래, 그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조용히, 느리게,
속삭이듯, 때로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마음을 잠들고 있습니다.
아래, 여기, 그 아래, 어딘가, 어딘가,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끊임없이, 때로는 침묵하고, 느리게 뛰고, 속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마음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아래, 어딘가, 아래, 여기, 어딘가 안쪽이 잠들고,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여러, 부서지고, 속삭이고, 느리게 뛰고, 때로는 침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때로는 침묵하고, 느리게 뛰고, 속삭이고, 상한 마음은 여기, 아래, 어딘가, 그 모든 것
아래, 어딘가 안에 있지만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개의 침묵, 속삭임, 느린 박동, 상한 심장이 어딘가,
아래, 여기, 어딘가 안쪽, 그 모든 것 아래, 그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다소,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속삭이는, 부서지고 느리게 뛰는 여러 개의 심장이 이
모든 것의 아래, 여기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어딘가, 여기 아래, 어느 정도
안쪽, 모든 것 아래 하지만 아직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여럿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며, 천천히 뛰고 있는, 끊임없는 그렇지만 때로는 부서진
마음들. 여기, 아래, 어딘가, 어딘가 안쪽,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아래에서 속삭이고, 조용히, 느리게 뛰고, 때로는 부서지지만 변함없는 심장이 여러
개 잠들어 있습니다. 어딘가 안쪽, 어딘가, 여기, 아래, 그 모든 것의 아래, 그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조용히, 느리게, 속삭이듯, 때로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마음을 잠들고 있습니다. 아래, 여기, 그 아래, 어딘가, 어딘가,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끊임없이, 때로는 침묵하고, 느리게
뛰고, 속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마음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아래, 어딘가, 아래, 여기, 어딘가 안쪽이 잠들고,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여러,
부서지고, 속삭이고, 느리게 뛰고, 때로는 침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때로는 침묵하고, 느리게 뛰고,
속삭이고, 상한 마음은 여기, 아래, 어딘가, 그 모든 것 아래, 어딘가 안에 있지만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개의 침묵, 속삭임, 느린 박동, 상한 심장이 어딘가, 아래, 여기, 어딘가 안쪽, 그
모든 것 아래, 그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다소,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여기.

Standing And Sitting At The Same Time.
103 x 68cm
Acrylic on Polycarbonate



Enough Time For Several Conversations.
75 x 55cm
Acrylic on Polyethylene Terephthalate & Polypropylene



All Pleasantries Aside.
57 x 40cm
Acrylic on Canvas



Sometimes There Is A Kind of Listening That Exists Without Sound.
133 x 103cm
Acrylic on Canvas



The Onion

Chris Ro

—

We all have a problem. Or that's what we'd been told millions, billions, gajillions of times. From every possible news media outlet, to isolated university academics, to data analysts who had been pumping their projections and their statistics machines nonstop—they all said basically we were screwed. As a country. As a future. No more babies. Or the lack of babies. No children. No kids. This no more kids thing was serious we had been told. It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The end of us. While the rest of the world was fearing ozone depletion and a warmer earth, we were grappling with the onset of a future of very old people. Very old people. We were all scrambling to figure out a crisis we knew not how to solve. Marriages had been on the steady decline for years. And now, with less marriages and a millennial generation that actually, actualized the expression, “giving a shit” or more so, “not giving a shit”, there just were no more kids. No more babies. No more youth to continue the struggle. But what could this all mean for our future? Nobody knew. Nobody knew anything. Nobody knew nothing. Nothing.

—

For the most part, historically, the Korean government its national policies had been so far pretty smart. Quite informed. Quite intelligent. The Korean government, with all its layers of bureaucracy and infinitely complex politics, had made some clever, perhaps ingenious moves. Such maneuvers were not directly responsible for, but could definitely claim some influence to good things like high speed connectivity, stem cell advancement, urban mobility systems, social welfare. Even abstract concepts like the Korean wave, the global phenomenon of Korean pop culture or the Koreanness of everything in the mid 2020s had a helping hand from the Korean government. But this time, the Korean government had not come up with any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is no baby thing. Now, in a not too distant future, we had kind of run out of answers. Or not so much running out of answers, we were actually just answerless. The country had gotten old. Just old. And there was not much anybody could do about this. The government policies to counter this in the 2020s were limited and for the most part mostly unsuccessful. Most of them were aimed at easing the financial burdens of raising a baby. Family support policies, infrastructure

for childcare, housing support—these were the typical assumptions and solutions of the government at this time. It was logical to think that people could not afford babies. And therefore, it just made sense to make efforts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of raising kids. But these tactics sadly had their limits. Limited in scope and limited in reach. For a country that had been pioneering concepts such as “smart” cities, LTE networks or even radical concepts like digital healthcare, this was the best they could come up with? Hardly inspiring. And sadly, ultimately, extremely futile. None of these policies were working. Nothing was working. Still no kids. The overall population continued to decline year by year. And in what was commonly seen as a last minute move of desperation, the Korean government set up a task force to investigate baby making processes in full detail. Was there anything, anything not yet thought of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uld implement? Anything that could help bring back the babies? This task force was assembled to think outside of the box. Outside the box. Thinking outside a box with perhaps not much left inside. Outside. The box.

—

This was the 2020s. This was the real birth of the ADHD¹ generation. Like the zombie apocalypse before this, a whole generation of smartphone addicts who consumed now, short form, social media content consisting of succinct, several second film clips for sometimes 5 to 7 hours a day, had become the majority. Everybody would not admit they were addicted but deep down inside, they knew they were addicted. Absolutely. It was a both invisible and visible sickness. Invisible because nobody knew what anybody was looking at on these phones. But visible because everybody was obviously looking at these phones. Couples eating dinner while no longer looking at each other. Couples who would only look at their phones and stop conversing at all for that matter. It was far more interesting to look at the phone. Far easier. Far more engaging. This was a generation of people who felt their hands subconsciously and sadly, consciously, reaching for their pockets every few minutes for that quick dopamine burst. An irresistible urge to check their phones. Even just for things like

1.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is marked by an ongoing pattern of inattention and/or hyperactivity-impulsivity that interferes with functioning or development. This definition is referred to the websit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nimh.nih.gov/health/topics/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adhd>

email. A small hit of email. A small hit of email? New mail? Was there a new message? It was sad. Quite sad. But this was life. Thank you Steve Jobs. Your vision for the world had become the world. Congratulations.

This ADHD generation could no longer read books. It was impossible now. It was completely impossible to read more than a few pages before getting that itch for another dopamine hit. Just a few pages and then boredom. Just a few pages and the hand starts inching towards that phone again. And sadly, this ADHD generation, had much of the same response to even meeting real people. Even at live, public events. Real, physical appointments. Or even while dating. This generation would find themselves unable to engage with the actual situation at hand. Instead, their hands, their minds would have this itch. This itch that could only be cured by their phones. Real things stood no chance of competing with these phones. Even real conversations, real interactions, real people. Even the super interesting, the super engaging humans in the flesh could no longer maintain the same attention that these phones could. Sad. Quite sad. But this was the new normal. And this particular government task force, different from ones before it, had a particular interest in this new normal. This task force had numerous suspicions about this ADHD phenomenon. While other task forces were again, focused on the economic maneuvers that could perhaps ignite a baby producing generation, this particular force was curious about an increasingly despondent society. A society with an inching to zero attention span. A society that could not sit still. Or sadly enough, a society that no longer read.

For all its advancements and technological prowess, Korea maintained a sometimes very classic or traditional approach towards dating. For the most part, the dating process evolved in extremely slow increments. Despite the emergence of dating apps based on big data and 200 question surveys, this millennial generation still found themselves sometimes resorting to timeless, classic dating concepts like the “sogae-ting²” or

hoping perhaps to meet somebody at work or at school. And this newly formed task force was interested in how ADHD worked in tandem with these slowly evolving dating processes. They had quickly discovered that the reality was that this ADHD generation in particular was one that had continuously been fed unreasonable amounts of unrealistic content. Fake might be an appropriate word but perhaps life-like could be better. Or hyper real? This generation was constantly following influencers on social media who might take 100 pictures only to eventually show just one photo out of that 100. And this photo, that special, selected one out of that 100, just happened to be amazingly, stunningly, suspiciously, truly perfect. Showing an almost unreal situation and capturing a perfect moment out of many imperfect moments. On top of that, this photo also happened to be heavily edited digitally to show something even more closer to perfect than perfect could be? Super perfect. And to even take it to yet another level, some computer savvy influencers would create combinations of real people with AI³ assisted image and video manipulation. Real meets hyper real meets unreal meets fantasy. The ultimate results of this? An unrealistic skewing of realistic expectations. And so this task force had discovered that the dopamine rush now required more. The dopamine rush required now an amazing amount of fantasy. The dopamine would not rush like it used to without such fantasy. Everything had to be super. Hyper. Real people were now second tier. Real people were just not as interesting. Real people that looked like real people were far below that dopamine kick. Far below that threshold. The spectacle, the fantasy of the hyper beautiful, the sensational. These became the standard. This was the new normal.

This task force had conclusively determined, that this, the attention deprived, dopamine addicted environment that we were all living in was, perhaps just as much as any other possible reason, affecting the absence of babies. People were still dating. But the joy of a real date could not compare to hyper reality. And even on a somewhat successful date, the participants were not stimulated enough to continue forward with the

2. A “sogae-ting” is a kind of arranged date by someone else. A “matsseon”, a similar word, is also an arranged date by parents or relatives introducing their children in the hopes of creating a potential marriage. On the other hand, “sogae-ting” is more commonly arranged by friends introducing mutual acquaintances for dating.

3.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the use of the study of computer systems or machines that have some of the qualities that the human brain has, such as the ability to interpret and produce language in a way that seems human, recognize or create images, solve problems, and learn from data supplied to them. This definition is referred to in the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artificial-intelligence>

dating process. It was cumbersome. Slow. Too involved. Too complicated. It was far easier to scroll through images and videos with the thumb and find equal if not more satisfaction with the unreal.

—

Ladies and gentlemen, please allow yourselves to give a warm, heartfelt welcome to the “Yoo Dong Jin Act.” Sometimes certain Korean government initiatives took on human names for both symbolic or identification reasons. The Kim Young-ran Act⁴ was an initiative in 2016 that was created to abolish corrupt practices of bribery behind closed doors. And although extremely difficult to enforce by law, the law was followed by what had always been, a very good samaritan citizen base in Korea. You could not gift certain food items above 30,000 KRW or give gifts of more than 50,000KRW. Or something like that. The Yoo Dong Jin Act act was a product of years of research conducted by this task force. It was essentially a dating policy. It was a kind of crazy law that simply stated when dating, a minimum of seven dates must be undertaken before exiting the relationship. Seven dates? What? What kind of craziness is this and how could the government be involved in personal dating or relationships? Crazy. Just crazy. Ye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Yes. Extremely likely to fail. Yes. For sure.

—

The Yoo Dong Jin Act from the onset seemed to be forever on the brink of failure. The act took quite some time to take hold. There was great disbelief upon its announcement. It was shocking. Just madness. The government was demanding what now? Absurd. What kind of crazy people were running this country? Or so everyone thought. But like any and all Korean laws, a law was a law. And in this generally compliant, kind, obedient society of just nice folks, people actually were polite and followed all laws. And as crazy as this law was, people somehow started to adapt and adjust to the Yoo Dong Jin Act. Act like any other act before it. Casual dating or the concept of fling-like, casual dating was the first to change. Or rather, not exactly change, but more or less disappear all together. People began to be quite serious when engaging in what was perceived as a date. For they knew, there was an

unwritten but binding agreement for six more successive dates afterwards. And so there was confusion and apprehension even in what previously were considered casual dating encounters. But as with all things, nature makes adjustments. People make adjustments. After a while, these seven dates, well, this was standard. This became the way things were and seven dates were just now a part of the process. This crazy law somehow became normal. The new normal.

—

So what was the logic behind this law? This task force had determined that in fact most people were quite compatible. At the very core, very compatible. And that love could form even from the most unlikely of human combinations. But to discover such love in contemporary relationships was, in its current material form, impossible. Why was it impossible? Well, as far back as anybody could remember, a heavy focus on external appearance was a very Korean thing. A very standard Korean thing. Something that had been around for generations upon generations. Korea had for the longest time an unusual array of hyper beauty standards that were so high, so hyper, they had already given rise to an epic era of intense plastic surgery. Such standards had created a large population of people who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appearances and unfortunately, for the most part, not satisfied with the appearances of others as well. So, not only was ADHD part of the equation. But this in tandem with these hyper beauty standards here made it impossible for “normal” or “sub normal” people to succeed in relationships. And by normal, we mean normal in appearance. Unrealistic beauty standards paired with again, unrealistic expectations ultimately equaled disappointment with everything that was real.

—

This task force had also ultimately discovered that the failure rate of “sogaeting” was astronomical. Nobody had done such in-depth research on this “sogaeting” phenomenon before, but the results were astounding. Well, perhaps more so astounding with a dash of pathetic. The data showed that this kind of dating almost never worked. And for a huge majority the reasons for failure were simply the aforementioned beauty standards in combination with these shortened attention spans. This rendered almost everybody unattractive. Whether they were attractive or not, nobody could compete with the unreal. When meeting somebody for the first time, sadly, neither corresponding participant could match any of these now sky high

4. The Kim Young-ran act. Otherwise known a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oposed in 2012 by Young-ran Kim, the then head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 law set up to curb the heavy bribing and corruption of people who were in positions of power and certain gifts they could receive from regular people.

expectations. Even for women, who, historically were more “forgiving” in terms of looks. Women, who proudly proclaimed that looks did not matter to them entirely, well this task force had ultimately determined that this was far from the truth. Looks did indeed matter. Looks mattered for everyone in this time. Height, or lack of height, skin complexion, teeth, eyes, nose, obesity, hair loss or unnecessary hair growth. All of these things ultimately did matter. This, in combination with the accelerated rate of visual assessment through smart phone applications where swipe gestures completed a date rejection in less than a micro second. This was sadness. A generation with no hope. A generation that was screwed.

—

But how could such a crazy law work? How could such a law be enforced? There were supposed fines for not adhering to this new law. As with previous national policies, the if, when and how of these fines being implemented was abstract. The power of this law was perhaps more in rumors and hearsay. There were rumors that so and so got fined. Or that there was a certain penalty in this situation. This was enough for the people to believe.

—

Society had adjusted. Society had evolved. People could change. This new law eventually took on a kind of cute, homemade nickname later. Some people started calling it the “onion law.” For any couple that went on this succession of seven dates, people started to begin to symbolize this drawn out process to the peeling of the layers of an onion. With every successive layer, more complexity, more vibrancy, something more potent and sometimes, more tears. This term onion, strangely began to take on a somewhat positive connotation. Cute. Curious. Alive. Potent. People began to acknowledge the conceptual component of peeling human layers. There was a certain rawness at the core of humans that had long gone unnoticed, untouched. A potent, powerful entity that for thousands of years had been hidden to eyes unable to see through escalated human vanity and decreasing attention spans. The onion metaphor was strangely apropos. For like an onion, the dating process or even human relations were not necessarily something pleasant. These interactions were not something beautiful or more so, instantly beautiful. There were emotions. There were tears. Obviously. Most of these date pairings, all had some form of conflict. As it was a succession of dates and not just one date, some kind of conflict

was actually unavoidable. Often times, by the third or fourth date, there was something obviously undesirable that came to light. Something that in any normal circumstances or in the past would equal an exit to the relationship. But this law somehow made and demanded for more dates. And in many cases, that one more date could do things. One more date. That one more date was strangely often enough to patch things up. To overcome said conflict. It was one more date than had happened in classic, traditional dating processes. And it was that important. One more date to fix things.

—

These seven dates typically went through a cycle or certain cycles. Most of the time, there was actually not much attraction at first between the dating parties. At the first passing of this law, it was a rather huge issue because people were so apprehensive to go on dates due to the seven day commitment. And so if there was no attraction at all, there were at first, no dates to be initiated. But people had to adjust. People had to evolve. People had to date. And people did start to date.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people started to complete the seven date requirement. And this was how things started to change. People could notice something happening. Something was indeed happening. Everywhere. Societal data began to gather. Societal big data. Rumors. Rumors that were later found to be truth. Rumors soon spread, as they do, of the onion. This curious onion. This onion. This was a thing now. The onion. And one had to experience it. Or so we heard.

—

“You have to try the onion. It’s not as bad as you think. I truly had no idea what I was getting into. But you have to try it for yourself. Can’t explain what happens. It’s too complicated. Too hard to explain. But it is worth trying at least once.”

—

The rumors that were shared often concluded that it was best not to judge somebody on a shabby or unattractive exterior. Like an onion. For every suspect facade, the rumors had it that there was always something raw, real, fascinating and perhaps beautifully pungent sitting inside. It just took some time to figure that out. And after some time, people really did figure this out. Soon, the onion became a kind of game. People wanted to try the onion. And while experiencing the onion, people were looking for ways to figure out the mysterious core of the onion. The core that was not readily

apparent at first glance or on the first date? How could one determine what was inside? It was almost near impossible at first. But people can figure things out. And people began to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a seven date cycle in order to even get close to figuring such things out. What was inside the onion? It took seven days even to begin to get a glimpse of these things. Abstract things such as humor, warmth. Gentleness. Kindness. Concepts that typically would never manifest on a first date. These kind of things would never manifest themselves in a digital image. But these abstract concepts, these became small treasures. Treasures that people knew they might find when beginning the onion. And with every successive date, some of these treasures became unlocked. Unlocked like levels. Levels in a game. This became a thing. A thing of its own. Look for the signs they said. Hard to see them but they are there if you look hard enough. Look for the small things. The subtle things. See if you can see the signs of something underneath. Something there. And when you see such signs, better yet, don't stop. Look further. Dig further. Go further. There might be something there. Perhaps something meaningful sits there. Perhaps something meaningful lives there, underneath. Something is there. Spirits? Perhaps? Perhaps? Maybe not quite a spirit. Perhaps a human. A real human being. Somebody. Sitting somewhere inside there, was somebody waiting for another somebody.

—

Waiting.
There, but waiting.
Somebody.

—

Appendix 1: The Stomach

People started to add certain unwritten rules to the "onion law." Things that kind of became unspoken etiquette and unspoken ceremonies that made this potent onion process all the more interesting. One of these was the simple act of cooking. It was an unwritten rule that during these seven days, each participant would have to cook one home made meal for each other. The reason this became part of the process was that people began to discover that such acts of service, the simple act of cooking, had some magical powers in and of itself. Even the most unattractive person, when whipping together a simple plate of basil pesto penne or Monterey Jack cheese topped shin ramen, inched that one step closer to being attractive.

This was the magic of giving. The magic of sensorial giving. A delicious meal could heal the most destructive argument and also break, even the most callous human beings. It was magic. And it was an unofficial part of the seven date process. Some people used it as an intermediary to resolve arguments. Some people used this as a way to close out the seven dates, kind of the like the relief pitcher in baseball. A way to seal the deal. Either way, the hands that cook, also became a part of the dating process. The senses of touch, taste and smell. These two were part of this onion process. They say the belly feels things. That you have to go with your guts. This unwritten rule created a way for stomachs to talk to other stomachs. The stomach knew what the eyes did not. The stomach could be trusted while the eyes could not.

—

Appendix 2: The Worlds Wants The Onion

The onion, like Hallyu, BTS, Korean cinema, soon somehow became a global phenomenon. Somehow. Coincidentally. Amazingly. There was absolutely no way to predict how this random law, this law that was at first so intensely criticized, this law that was predicted to be an absolute failure, could have found such footing. This law that was thought to be an invasion of privacy. How a random law could have become a global phenomenon was unfathomable. But it did. People heard about the onion all over the world. And they wanted in. They wanted to experience such things. The same social media that had created a generation of limited attention was now being used to spread the quirks and perks of this thing called the onion. In a short amount of time, this onion became a bandaid for humanity. Healing wounds. Healing ancient sufferings. The sufferings of a world obsessed with vision. The sufferings of a history obsessed with physical appearance. And this strange law, this strange thing known as the onion, had changed that. From the Philippines to Canada, the onion became a thing. Somehow, another bizarre triumph or victory of the Korean government.

—

Appendix 3: Different, Not Necessarily Better

The onion, as global phenomenon, had changed things. But were things for the better? Not sure. Divorce and divorce rates stayed relatively the same. Despite an increase in relationships and long term couples, the conflicts that culminate in divorce were still unavoidable. Were there more babies? Yes. But not in the quantities that the task force had hoped for. Were people

happier? Perhaps this could be a definitive yes. A large section of society who had, for quite some time, been excluded from dating activities were now involved. Part of something they had not been before. And this for sure spiked an uptick in overall societal happiness. But were things better? This was a question that this government task force could not answer in confidence. Things were different. But not necessarily better.

Act on the Prohibition of Short-term Dating
(Abbrev. Yoo Dong Jin Act)
[Enforcement Date 5. June, 2024.]
[Act No. 246810, 1. June, 2024., Amendment by Other Act]
—
The Prohibition of Short-term Dating Policy Division 042-800-8282
—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actual dating over a certain period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exchange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having a relationship by prohibiting short-term dating between citizens of Korea.

Article 2 (Definition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as follows:

- 1: The term “citizens of Korea” means any person legally entitled to be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2: The term “short-term” means the following a period of time:
 - A: a period of less than seven days from the first actual dating;
 - B: a period that includes fewer than five times of actual dating from the time the dating began.
- 3: The term “dating” means a behavior for the purpose of having a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who is opposite or same sex, including intangible exchanges such as emotional and mental exchanges.
- 4: The term “actual dating” means the following cases:
 - offline dating, which takes place in person rather than online;
 - spending time together lasting at least one hour with equal opportunities and moments to engage in conversation.

Article 3 (Responsibility of the State, etc.) The State shall endeavor to comply with the following items faithfully:

- 1: The State shall create living conditions that enable citizens of

- Korea to conduct non-short-term dating in a safe and fair.
- 2: The State shall create a public culture in which short-term dating is not tolerated to ensure that citizens of Korea perform exchanges in a fair manner.
 - 3: The State shall provide appropriate protection to ensure that citizens of Korea are not penalized for taking behavior under this Act, such as reporting offenses.

—

Article 4 (Obligations of Citizens, etc.) The citizens of Korea shall endeavor to comply with the following items faithfully:

- 1: The citizens of Korea shall endeavor to maintain the following attitudes during the actual dating:
 - A: Avoid judging or condemning the other based on the other's appearance. Most, if not all, people may look different than they are represented in the media;
 - B: Minimize the use of mobile phones during actual dating and try to focus on conversation with each other. It is a typical symptom of smartphone addiction to feel tempted to reach for your mobile phone, even during dating. However, the behavior of checking your phone frequently during dating has higher potential for relationship failure.
 - C: Do not engage in behavior that may threaten the mental or physical safety of the other and shall respect the wishes of the other;
 - D: Avoid making judgments based on first impressions. Experiencing the other's full spectrum as a human — that is, from the absolute best to the absolute worst — is mandatory;
 - E: Do not attempt to define a relationship early on. Creating conclusions about the other could be the beginning of failure in the dating process. Humans who can evolve and change are not creatures that can be defined or categorized immediately or accurately;
 - F: Understand that most datings are highly likely to fail;
 - G: Lower expectations to rock-bottom levels. High

expectations of the other eventually end most relationships;

- H: Look for signs of potential hidden underneath the already-exposed personalities or appearances;
- I: Encourage conversations and dialogue. However,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silence can sometimes be an essential factor in sustainable relationships.

- 2: The citizens of Korea shall endeavor to include the following behaviors during the minimum period for non-short-term actual dating:

- A: At least one of the dates should include a breakfast date during which each other does not take a shower or wear fancy clothes. It may be a bit difficult, but experiencing each other's natural appearance earlier in the dating process shall create a basis for a sustainable relationship;
- B: Provide homemade food for each other during the actual dating process. Gestures and acts of serving and sacrificing can melt hearts. Cooking behavior and expressions of appreciation can change the mood of dating circumstances or impressions of each other on a date dramatically;
- C: Make an effort to look beyond the surface of the other. Conversations and questions about life, dreams, passions, dislikes, annoyances, stress, happiness, hobbies, careers, and family can be good starting points.

—

Article 5 (Reporting Violations, etc.) If anyone discovers that a violation occurred or is occurring, he/she may report it to the authority — The Prohibition of Short-term Dating Policy Division.

—

Article 6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 1: Anyone who fails to do one's obligations in Article 4 faithfully;
- 2: Anyone who caused mental or physical harm to the other

person or damaged his/her property during the period of the dating;

- 3: Anyone who reported another person even though he/she was aware or could have been aware that the report contained false details; Any other case where the person reported for some other improper purpose.

—

Article 7 (True or False) Only one of the following items may be real, or all of them may be real, or all of them may be fake:

- 1: This Act is fake;
- 2: Or it may be real;
- 3: It may be fake that is close to the real;
- 4: The framework of fakeness is usually based on the real world. Fakeness tends to represent parts of the real world.

—

*This Act, is based upon the fictional text The Onion, is based on the actual ac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we leave it to the readers to decide whether this act is real or fiction.

Yoo Dong Jin Act

Excerpts From The Archive of Participants'

Thoughts, Challenges, Conclusions.

Random participants, aged 25 to 54, from Seoul, Daejeon, Daegu, Gwangju, and Busan.

—

"Things were not going well. It was already the second date, and I was thinking what the Hell have I gotten myself into. I was looking for the escape hatch. The eject button. I was desperately looking to hit the eject button, but I knew I had to go through with it. I knew I had more dates to go. Everything was not working. We could barely converse. He would cut me off. There was just no synergy. However, on this third date, he cooked. Prepared a small meal for me. And my jaw dropped. Out of this shabby kitchen was born something beautiful. He had prepared Gnocchi with burnt butter and walnuts. I don't know much about Italian cooking, but I knew this was not an easy dish. And just the thought of this effort. And the dexterity by which he produced this. And well, most importantly, the taste. When I took that first bite. All this anger. All this regret. Everything just disappeared. Something felt possible."

—

"I am a bookworm. I have always been a bookworm. And my home away from home was the library. Even in college and past college, this was my home. This love for books, sadly, has probably left me out of mainstream society. And more so, given an opportunity for dating to pass me by. I have had very little interest in fashion or current media. My appearances are also, perhaps, one might describe as bookish. And I had been set up on a few arranged dates by friends of my parents. All failures. And I knew why. However, in recent times, this act has changed things. Literature is not a subject that goes well on the first date. But as time went on, the conversations on literature had reached quite extraordinary levels. And, strangely, this was a first."

"We had reached date seven. And it was pretty close. I mean, we had our ups and downs. And I could see some potential here. But I knew this was not going to work. Sadly, however, this was the closest to dating success I've ever experienced in my life. But sadly, I just knew it would not work."

Even though I did not have any previous experience of what a working relationship was.”

“No way. Seven days? I’m definitely not the kind of person who has extended leisure time. This Act just does not make any sense. At all. Maximizing benefits, efficiency, and productivity. What could be more fabulous than this? In all reality, I just need actually around 10 minutes to see if it is worth continuing a date. Even more so, I just need around three minutes to make an impression on others. So, seven days? Absolutely. Not. (The Apple watch’s alarm goes off.) I don’t know how I can live my life without this device. This little private assistant informs me of everything. And I guess it is now time to go exercise. (The Apple watch’s alarm goes off again.) Ughh. This is a kind of emergency call from a client. I will have to make a quick call now. All this to not be late for my next schedule. Do you mind if I stop the interview now?”

“I took one look at him and I thought, ‘No way.’ Never in a million years. Just pure ugliness. Astonishingly ugly. Like, I could not look at him in the ugly face. He had ripples in his neck from obesity. Both on the front and in the back. And I thought this for the first three dates. Just how astonishingly ugly he was. But somehow on date four, I started to see this ugliness less. He was sincere. He was cordial. And somehow, he made me laugh. Not all the time, but sometimes. And this got to me. And soon, this ugliness became endearing. The ripples somehow began to look cute. Hard to describe how this could happen, but these ripples of fat started to look lovely.”

“The first date was extremely awkward. She barely spoke, so I was positive that she would not be interested in me at all. We barely looked at each other. It was hard to digest the fact that I would need to have a few more dinners and drink coffee with someone who had no interest in me. It was all a waste of time for me, but I didn’t want to pay the fine. So we met again. Again and again. Finally, it made sense. She was just shy. A cat person, as they sometimes call them. She thinks slowly. Speaks slowly as well. Sometimes, she seems to transcend a kind of universal time frame. Throughout our dating, I became increasingly comfortable within this different time frame. I realized that I had been accustomed to the speed of elevator speech

culture. Now, I’m kind of over this accelerated life cycle. Thank you, Yoo Dong Jin Act.”

“I am fifty-five. I had been in one very brief relationship, almost 16 years ago. Dating had left me behind. And I had almost given up. I am still living at home with my mother and have no stable income. I know I am unattractive on a number of levels. With these kinds of statistics, my potential for success in dating was already at an all-time low. But this act strangely had given me hope. I have not succeeded yet, but the fact that I was meeting people and I was dating past one date was a true miracle in and of itself. On any normal day, I would never have made it past date one.”

“I prefer to keep some distance from others. Am I not an honest person? I am not sure. I always try to do my best for others. I have never lied to others. I am faithful in and to the moment. But apart from that, it is hard for me to reveal myself wholeheartedly, like peeling an onion. I’m even a little afraid to face my heart underneath. Are the outer shells that surround me protecting my heart? Or do they help hide my heart? How can I reveal myself entirely? I’m sure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similar to me. Obviously, they don’t know how to peel the onion by themselves. I’m confused in this situation where I am forced to do something without knowing how to do it. What should I and we do?”



































